

한 눈에 보는 인구통계

: 아시아 · 오세아니아



유삼현 · 윤유정 · 최 슬

한 눈에 보는 인구통계 : 아시아 · 오세아니아

지은이 유삼현 · 윤유정 · 최 솔

발행처 (주)아태인구연구원

주 소 (35209)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48, 매그놀리아빌딩 302호

전 화 042-482-9328

URL <http://www.appi.re.kr>

ISBN 979-11-960023-3-6

머리말

아태지역은 2017년 현재 약 45억 명, 전 세계 인구의 약 60%가 살고 있습니다. 아태지역은 그 인구 규모뿐 아니라, 확대되고 있는 정치·경제적 영향력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곳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. 이 지역은 인구증가부터, 출생성비의 불균형, 저출산, 고령화까지 다양한 인구현상을 경험하는 서로 다른 배경의 많은 나라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. 인구통계는 한 사회의 사회구조와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사용되며, 아울러 인구통계의 비교를 통해 우리 사회는 물론 다른 사회의 중요한 특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.

통계청의 지원으로 아태인구연구원은 인구통계의 사용을 촉진하고 아태지역 인구연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아태인구연구원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아태지역의 인구 정보를 차트와 그래프로 가공하여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.

이 책의 내용은 2017년 한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인구 정보와 그래프들을 수정하고 편집한 것입니다. 인구 통계와 정보는 '유엔의 세계인구전망: 2017년 개정판(UN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)' 자료를 기준으로 보완하였으며, 필요할 경우 통계청과 유엔인구국(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)의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. 책의 전반부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각 세부지역별 인구지표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으며, 후반부는 한국, 일본, 중국, 몽골 등 동아시아의 각 국가별 인구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. 이 책에 포함된 인구 통계와 정보들이 아태지역 인구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간략한 입문서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
이 책이 나오기까지 원고를 작성하고 편집해 주신 공주대학교의 유삼현 교수와 감수해 주신 유종열 교수, 통계자료를 정리하여 그래프를 작성한 아태인구연구원의 윤유정 연구원과 최솔 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.

2017년 12월
(주)아태인구연구원
원장 김 태 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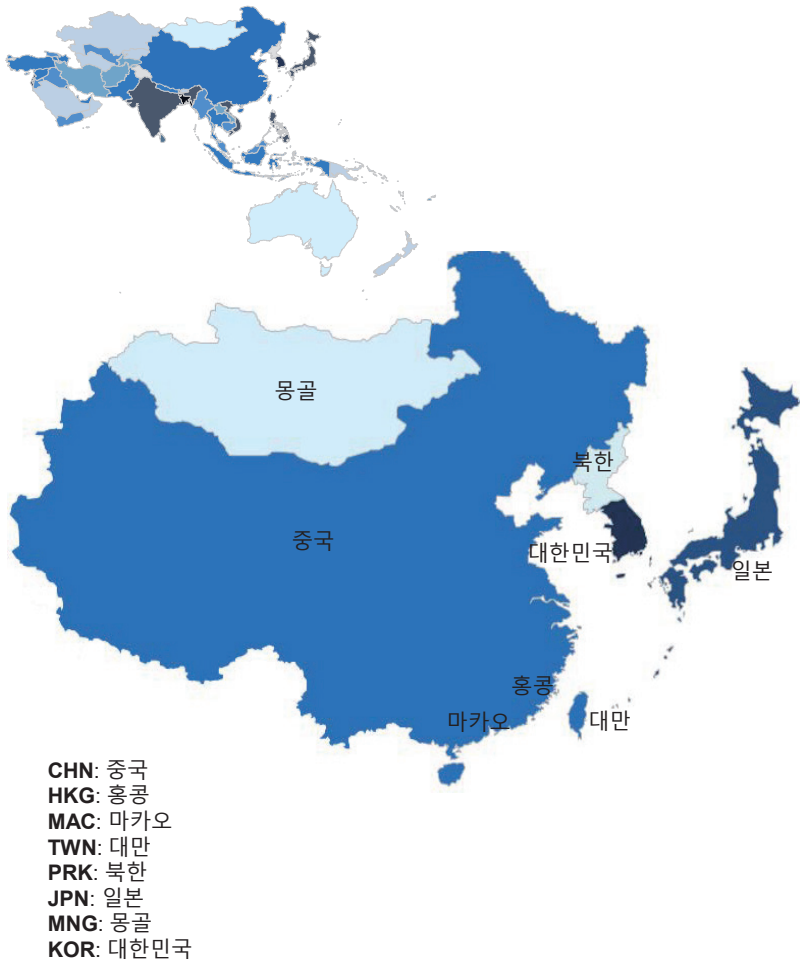


목 차

1. 동아시아	1
2. 중앙아시아	7
3. 남아시아	13
4. 동남아시아	19
5. 서아시아 I	25
6. 서아시아 II	31
7. 오세아니아	37
8. 동아시아 : 한국	43
9. 동아시아 : 일본	55
10. 동아시아 : 중국	67
11. 동아시아 : 몽골	79
12. 동아시아 : 북한	91



1. 동아시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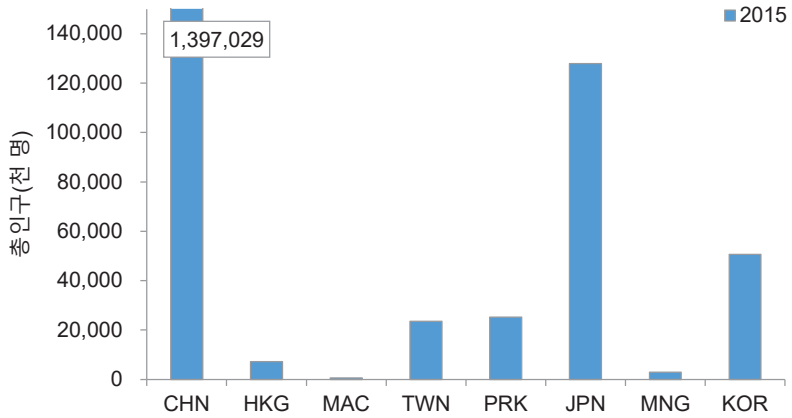


인구밀도 <5 <25 <50 <100 <250 <500 <1000 1000+

단위: 1 km^2 당 인구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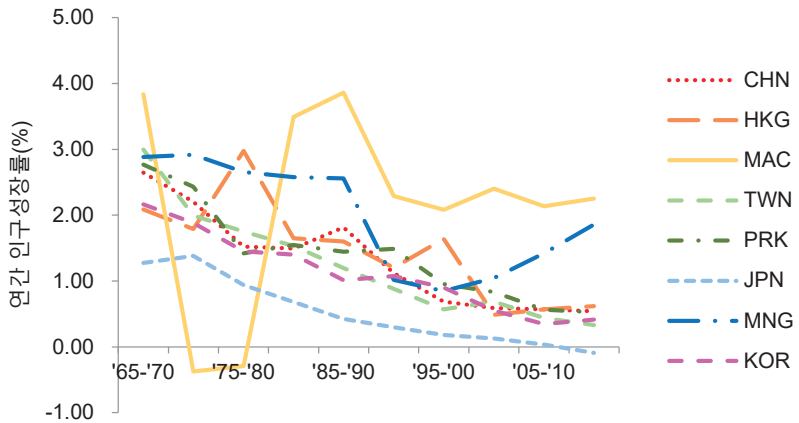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전체 인구, 2015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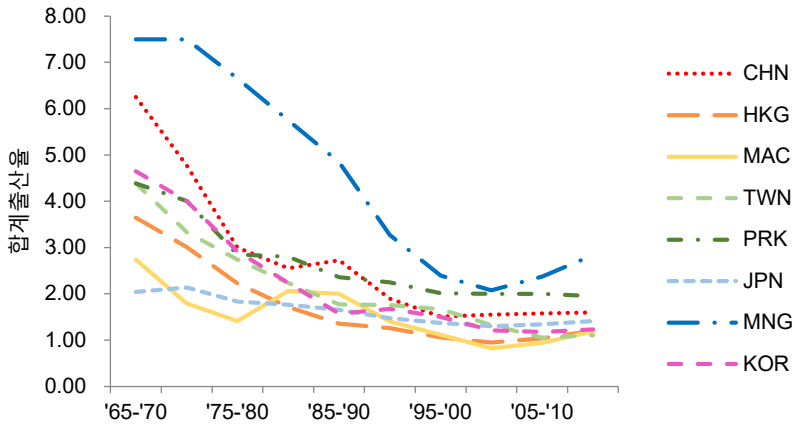
연간 인구성장률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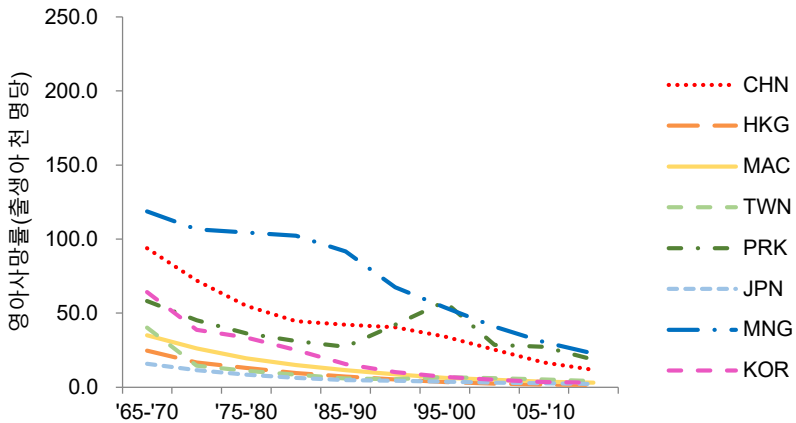


합계출산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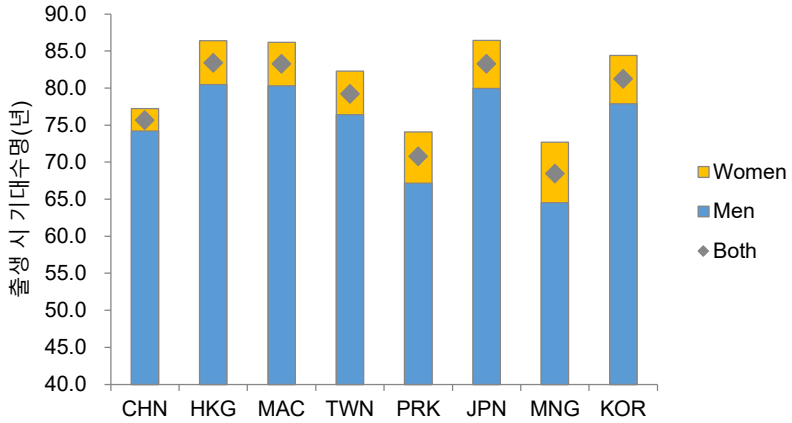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영아사망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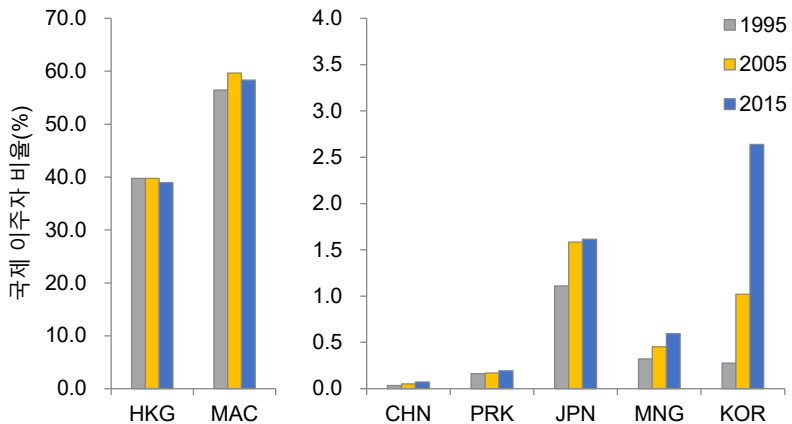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출생 시 기대수명, 2010-2015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국제 이주자 비율



자료: International Migrant Stock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

동아시아 지역의 인구통계

인구 규모와 인구밀도

- 중국은 전 세계 국가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, 홍콩, 마카오, 대만을 제외하고도 2015년에 약 14억여 명에 이르러 동아시아 전체 인구의 약 86.6%를 차지하고 있다.
- 한국과 일본의 인구는 2015년 약 5,059 만명과 12,797 만명으로 동아시아에서 각각 세번째와 두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.
- 몽골의 인구밀도는 2015년 1.9명/km²으로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.

인구성장률

- 지난 20년 동안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구성장세가 둔화되었다.
- 몽골의 경우, 예외적으로 인구성장률이 1995-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0-2015년 동아시아에서 마카오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인 1.86%까지 증가하였다.
- 일본은 2010-2015년에 연간 인구성장률이 -0.1%을 기록하였으며,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, 즉 전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.

합계출산율

- 중국 본토의 출산율 수준은 1990-1995년에 대체 수준 이하로 감소한 이후 여성 1명 당 평균 1.5-1.6명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
- 몽골에서 합계출산율은 2000-2005년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나, 이후 빠르게 회복하여 2010-2015년에 동아시아 최고 수준인 여성 1인당 평균 2.83명 수준까지 상승하였다.
-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1년 초저출산 수준인 1.3 이하로 하락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,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갖는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.

영아사망률

- 일본의 영아사망률은 2010-2015년 출생아 천 명당 약 2.2건으로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.
-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1950-1955년 출생아 천 명당 138.0건에서, 2010-2015년 출생아 천 명당 3.0건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다.
- 몽골과 북한의 경우, 2010-2015년 영아사망률이 인구 천 명당 각각 22.8건과 18.5건으로 추정되며,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.

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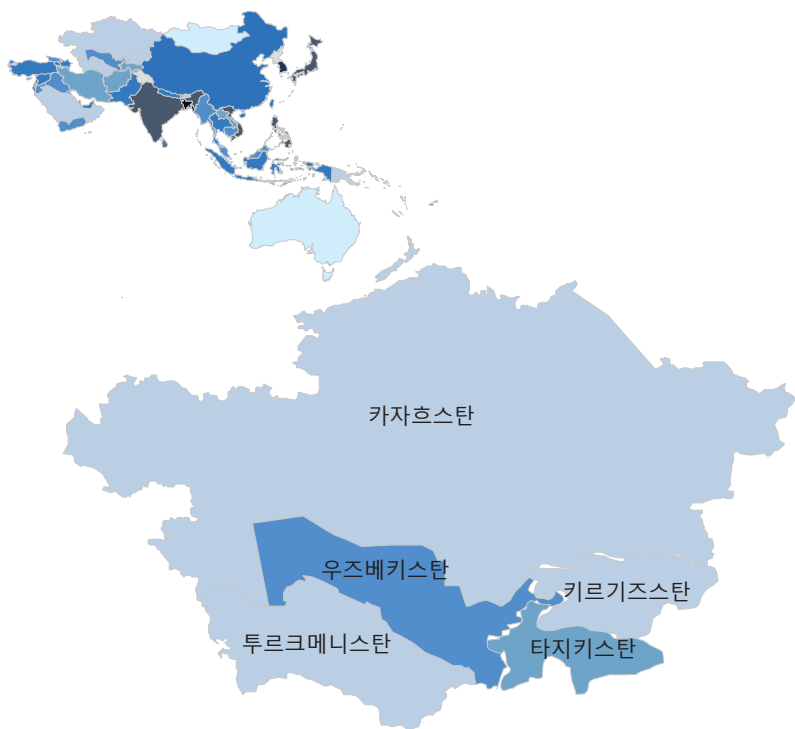
- 일본의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지난 1980-1985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, 2010-2015년의 경우 남녀 전체 평균 83.3세의 기대수명을 기록하였다.
- 중국의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1950-1955년에 43.8세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0-2015년에 75.7세로 빠르게 증가하여, 기대수명이 31.9년 증가하였다.
- 북한은 지난 1990-1995년과 1995-2000년 사이 발생한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인해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이 일시적으로 6.5년 감소하였다.
- 몽골의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지난 6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, 2010-2015년에 68.5세를 기록하여 동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.
- 한국의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2010-2015년 81.3세를 기록하였고, 남성 77.9세, 여성 84.4세로 여성이 6.5세 더 장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.

국제 이주자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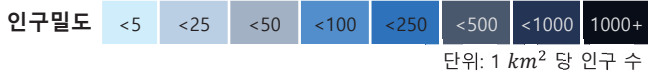
- 중국과 북한 내 국제 이주자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, 2017년 각각 전체 인구의 0.1%와 0.2%에 그치고 있다.
- 한국은 2017년 국제 이주자 비율이 전체 국민의 약 2.3%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,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.



2. 중앙아시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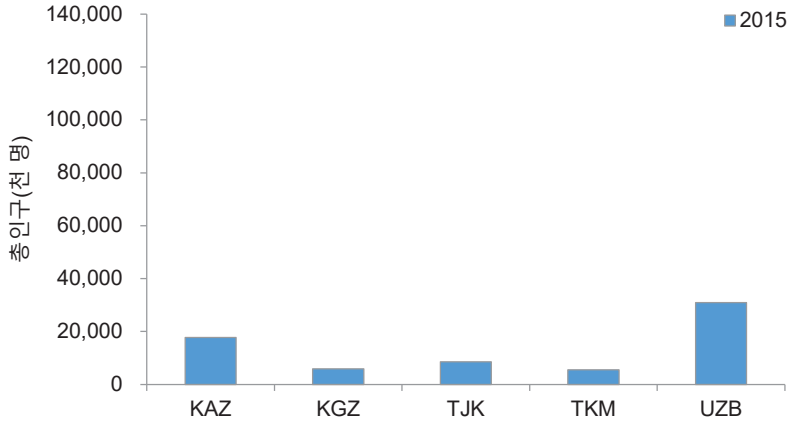


KAZ: 카자흐스탄
KGZ: 키르기즈스탄
TJK: 타지키스탄
TKM: 투르크메니스탄
UZB: 우즈베키스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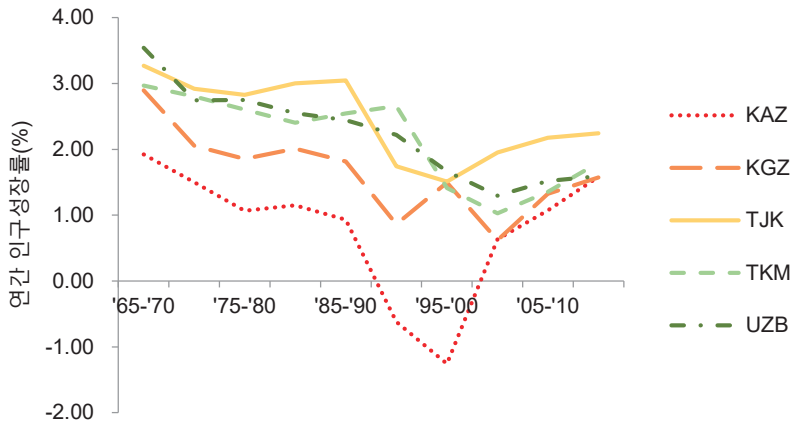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전체 인구, 2015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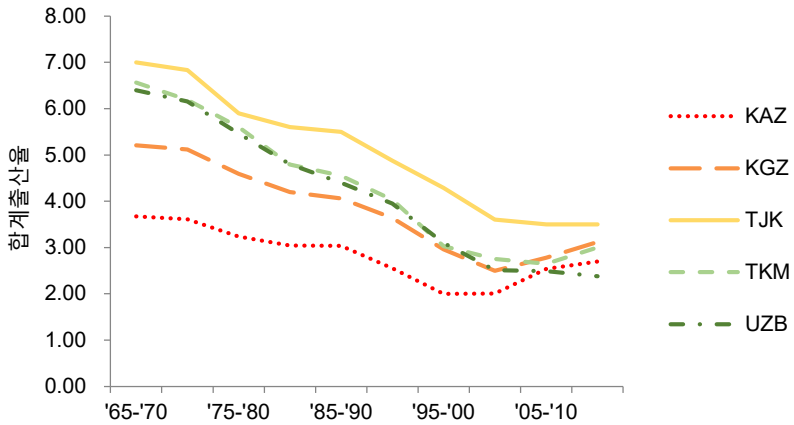
연간 인구성장률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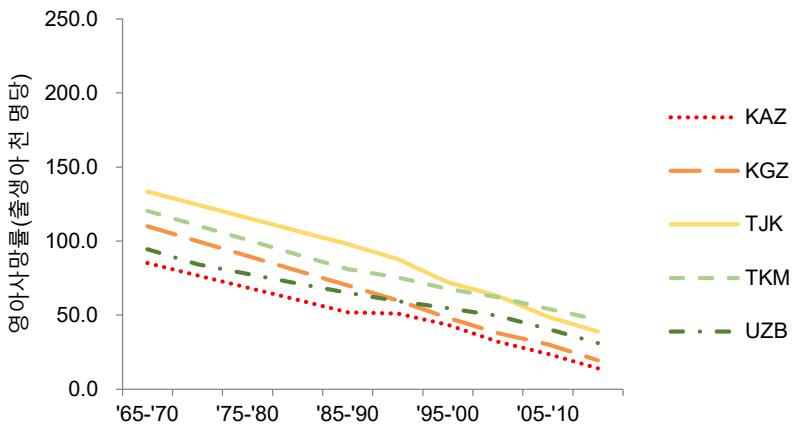


합계출산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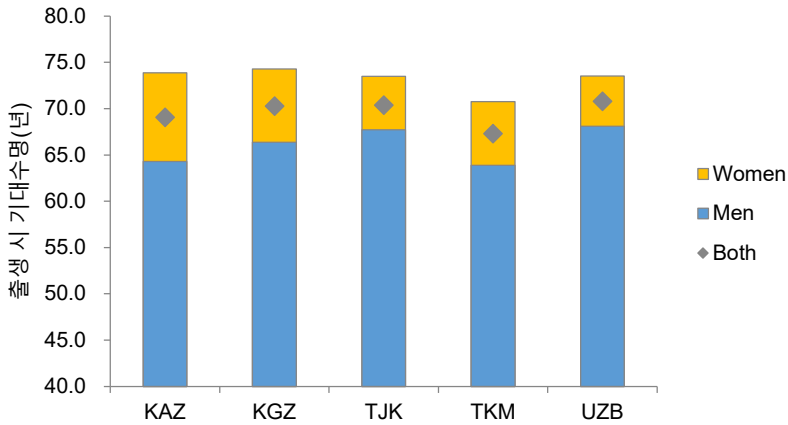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영아사망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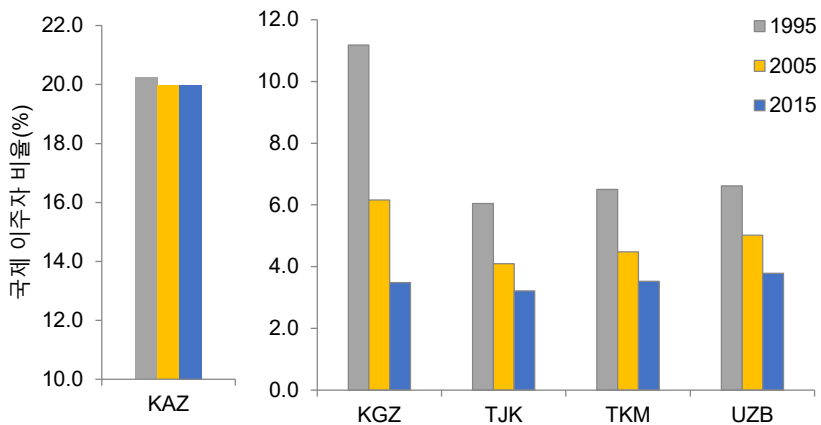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출생 시 기대수명, 2010-2015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국제 이주자 비율



자료: International Migrant Stock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

중앙아시아 지역의 인구통계

인구 규모와 인구밀도

- 우즈베키스탄은 2015년 3,098만 명의 인구와 72.8명/km²의 인구밀도를 기록하여,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인구와 인구밀도를 갖는다.
- 카자흐스탄은 1,775만 명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중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갖고 있지만, 인구밀도는 6.6명/km²로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.
- 투르크메니스탄의 인구는 지난 1985년 324만 명에서 2015년 557만 명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에 속한다.

인구성장률

- 타지키스탄의 인구성장률은 지난 1995-2000년 연간 1.51%에서 2010-2015년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연간 2.24%로 크게 증가하였다.
- 타지키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은 2010-2015년 연간 1.5-1.8% 정도의 유사한 인구성장률을 기록하였다.

합계출산율

- 중앙아시아에서 2010-2015년까지 대체 수준 이하의 출산율에 도달한 나라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.
- 우즈베키스탄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1960년대 여성 1인당 평균 6.0명 이상에서 꾸준히 하락하여 2010-2015년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여성 1인당 2.38명까지 감소하였다.
- 타지키스탄의 출산율은 지난 40여 년 동안 감소하였지만, 2010-2015년 합계출산율이 여성 1인당 3.50명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.
- 카자흐스탄은 1995-2000년에 여성 1인당 2.0명의 출산율로 대체 수준 이하의 출산율을 기록하였지만, 그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0-2015년에 여성 1인당 2.70명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

영아사망률

- 카자흐스탄은 지난 반세기 동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낮은 영아사망률을 가진 나라였으며, 2010–2015년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천명 당 14.1건을 기록하였다.
- 키르기스스탄 역시 영아사망률이 1950–1955년 출생아 천명 당 140.0건에서 2010–2015년 출생아 천명 당 19.6건으로 빠르게 개선되었다.
-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영아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투르크메니스탄으로 2010–2015년 영아사망률이 출생아 천명 당 46.9건을 기록하였으며, 타지키스탄이 38.9건, 우즈베키스탄이 31.3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.

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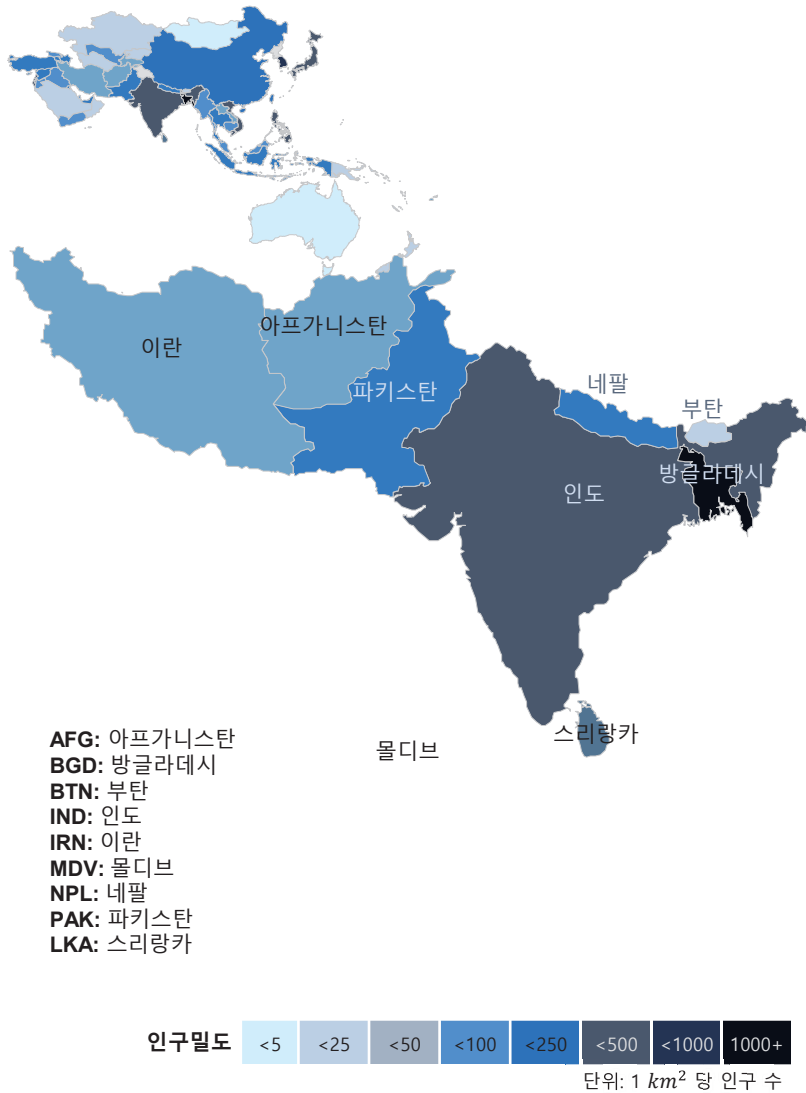
- 중앙아시아에서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2010–2015년에 이르러서야 70세를 넘어섰으며, 키르기스스탄이 70.3세, 타지키스탄이 70.4세, 우즈베키스탄이 70.8세를 각각 기록하였다.
- 투르크메니스탄은 2010–2015년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67.3세의 평균 기대수명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카자흐스탄에서는 1950–1955년부터 지속되어 오던 평균 기대수명 증가추세가 1980–1985년 이후 전환되어, 1980–1985년 67.5세에서 1990–1995년 63.0세로 하락하였다.

국제 이주자 비율

- 2017년 카자흐스탄 내 국제 이주자는 전체 인구 중 약 20.0%를 차지하였으며,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.
-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은 2017년 국제 이주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.0%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.
- 키르기스스탄은 전체 인구 중 국제 이주자의 비율이 1990년 14.2%에서 2017년 3.3%로 빠르게 하락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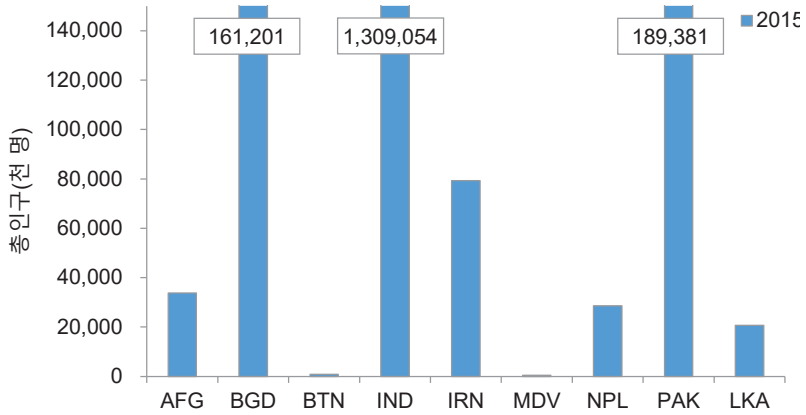


3. 남아시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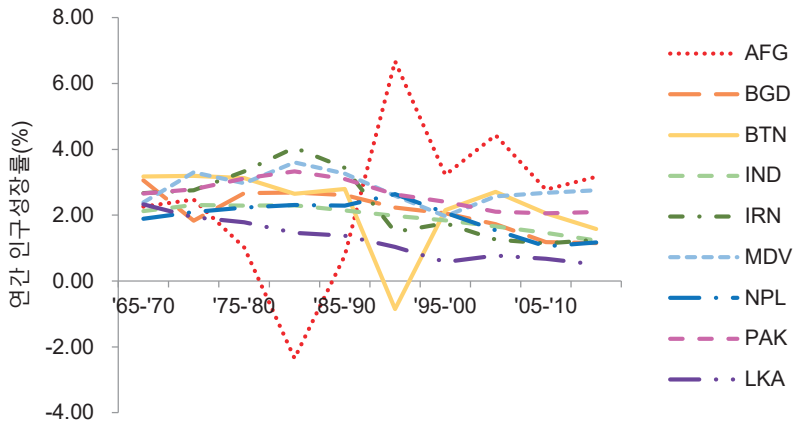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전체 인구, 2015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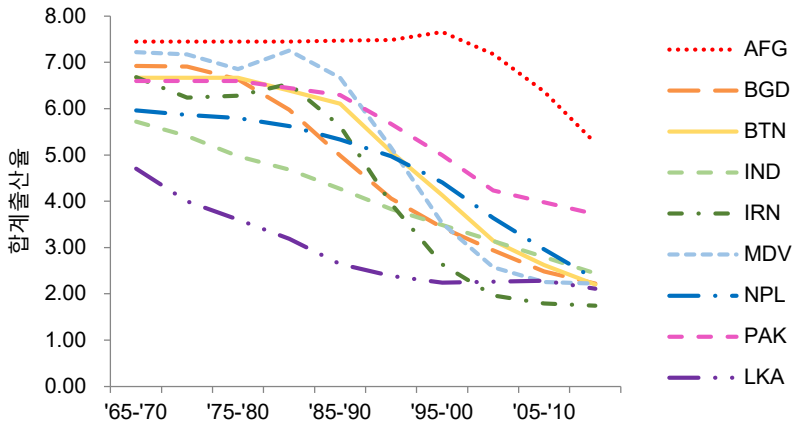
연간 인구성장률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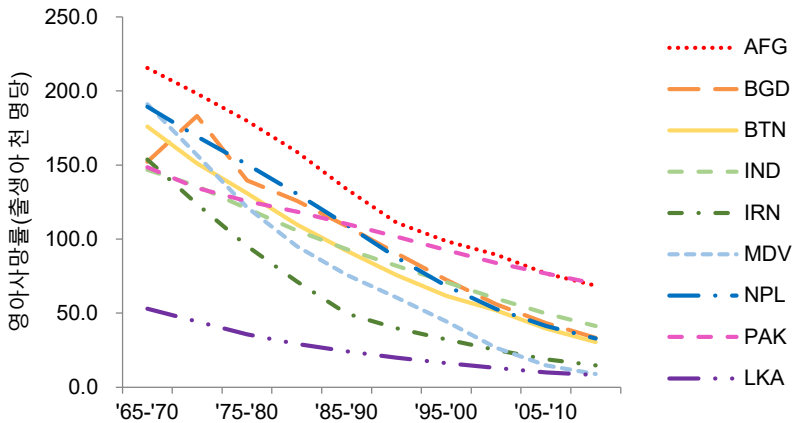


합계출산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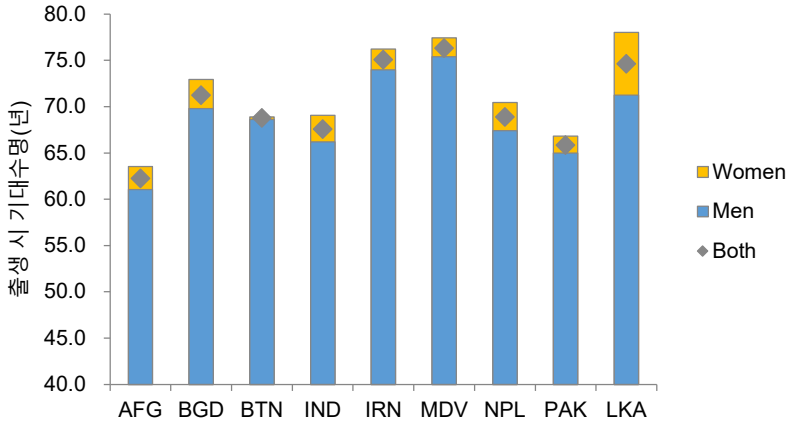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영아사망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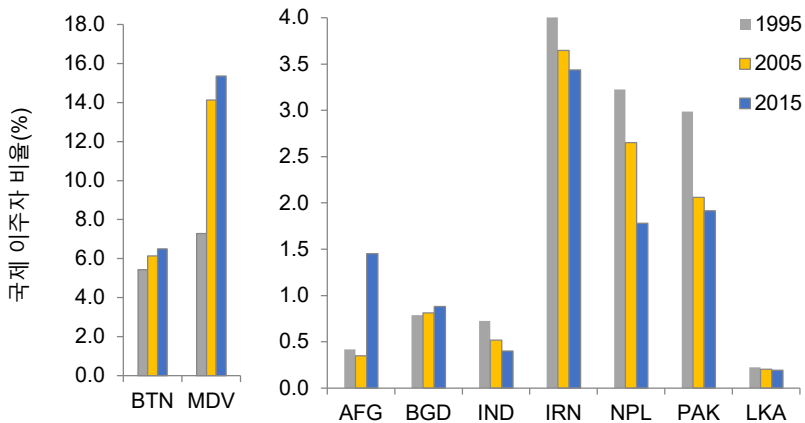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출생 시 기대수명, 2010~2015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국제 이주자 비율



자료: International Migrant Stock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

남아시아 지역의 인구통계

인구 규모와 인구밀도

- 인도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, 2015년 약 13억 명의 인구를 기록하며 남아시아 지역 인구의 2/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.
- 파키스탄은 남아시아 지역에서 인도에 이어 인구가 많은 나라로 2015년 18,938만 명의 인구를 기록하고 있다.
- 몰디브는 2015년 1km² 내 1,394.7명이 거주하고 있어 남아시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다.
- 반대로 부탄은 남아시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곳으로 1km²당 20.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,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이 1km²당 각각 48.7명과 51.7명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.

인구성장률

-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연간 인구성장률은 1980-1985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여 왔으며, 2010-2015년에 각각 1.16%와 1.23%를 기록하였다.
- 아프가니스탄은 1990-1995년 이래 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빠른 인구성장을 경험하였으며, 2010-2015년에 3.16%의 연간 인구성장률을 기록하였다.
- 몰디브는 2010-2015년에 2.76%의 연간 인구성장률을 기록하여 남아시아 국가 중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두번째로 빠른 인구성장을 보이고 있다.

합계출산율

- 이란과 스리랑카를 제외하고, 남아시아의 모든 국가에서 2010-2015년에 대체 수준 이하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.
- 이란은 1985-1990년 여성 1인당 무려 6.66명의 매우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였으나, 이후 매우 빠른 감소를 통해 2010-2015년 남아시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여성 1인당 1.75명의 출산율까지 하락하였다.
- 아프가니스탄은 2010-2015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여성 1인당 5.26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.

영아사망률

- 스리랑카는 1950-1955년과 2010-2015년 사이에 남아시아의 어떤 국가보다도 낮은 수준의 영아사망률을 유지하고 있었다.
- 몰디브의 영아사망률은 1950-1955년 출생아 천명 당 268.3건에서 2010-2015년 출생아 천명 당 9.0건으로 매우 빠르게 하락하였다.
- 스리랑카와 몰디브를 제외한 남아시아의 국가들에서는 2010-2015년 영아사망률이 모두 출생아 천명 당 10.0건을 넘은 수준이었다.
- 영아사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,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영아사망률은 2010-2015년 출생아 천명 당 각각 68.6건과 69.8건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.

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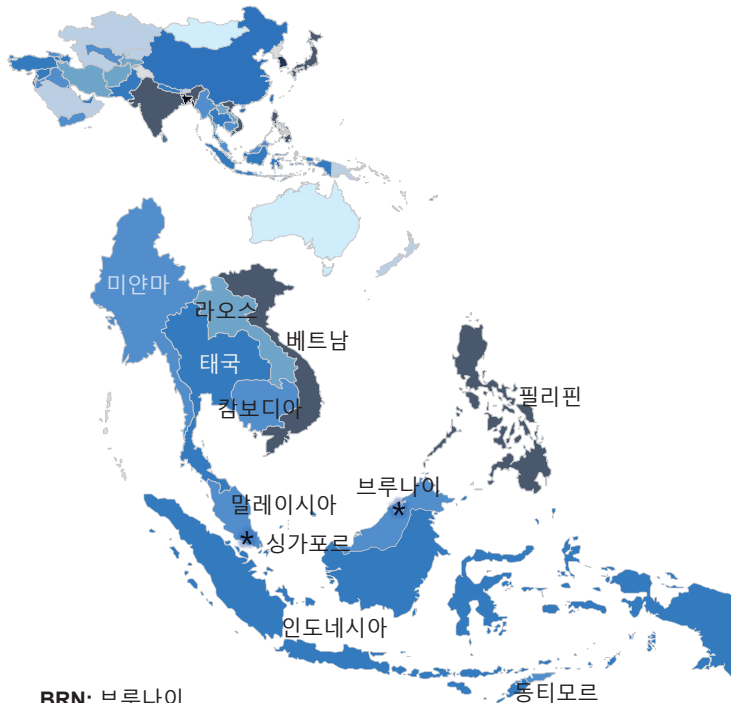
- 아프가니스탄, 부탄, 몰디브, 네팔과 같은 나라에서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이 1950-1955년과 2010-2015년 사이에 무려 두배 이상 상승하였다.
- 특히 몰디브는 남아시아 국가 중 기대수명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곳으로, 지난 1950-1955년 34.5세에서 2010-2015년 76.3세로 기대수명이 무려 41.8년 증가하였다.
- 스리랑카 역시 같은 기간, 1950-1955년과 2010-2015년 사이, 평균 기대수명이 54.5세에서 70.5세로 상승하였으며 기대수명이 20.1년 증가하였다.

국제 이주자 비율

- 몰디브는 2017년 전체 인구 중 약 15.4%가 국제 이주자로서 남아시아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제 이주자 비율을 보이고 있다.
- 같은 해 스리랑카는 국제 이주자가 전체 인구의 0.2%에 불과하여 남아시아 지역에서 국제 이주자 비중이 가장 낮은 특성을 갖는다.
- 인도에서는 국제 이주자 비율이 지난 1990년 전체 인구의 0.9%에서 2017년 0.4%로 감소하였다.



4. 동남아시아



BRN: 브루나이
KHM: 캄보디아
IDN: 인도네시아
LAO: 라오스
MYS: 말레이시아
MMR: 미얀마
PHL: 필리핀
SGP: 싱가포르
THA: 태국
TLS: 동티모르
VNM: 베트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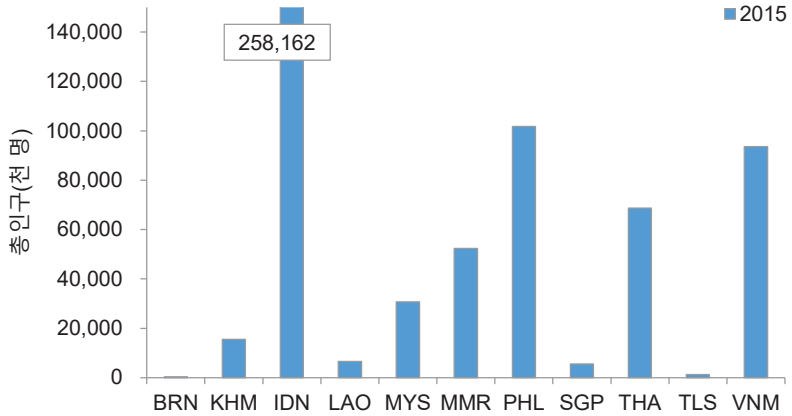
인구밀도



단위: 1 km² 당 인구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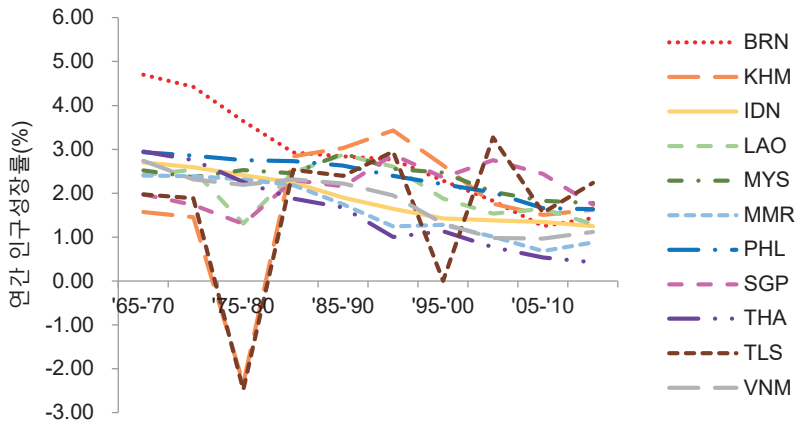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전체 인구, 2015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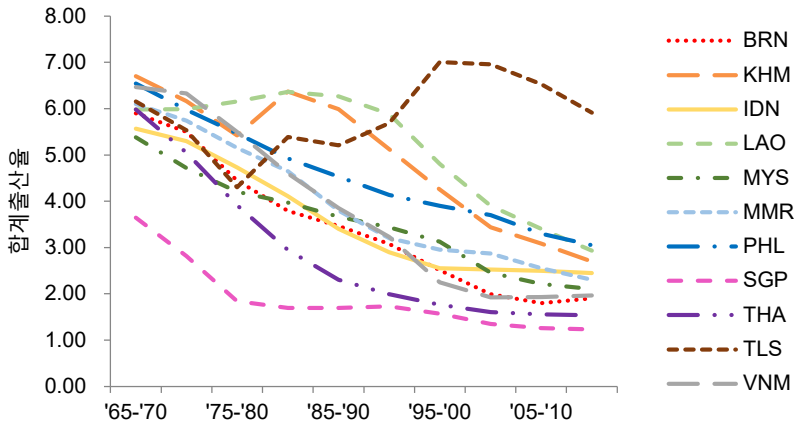
연간 인구성장률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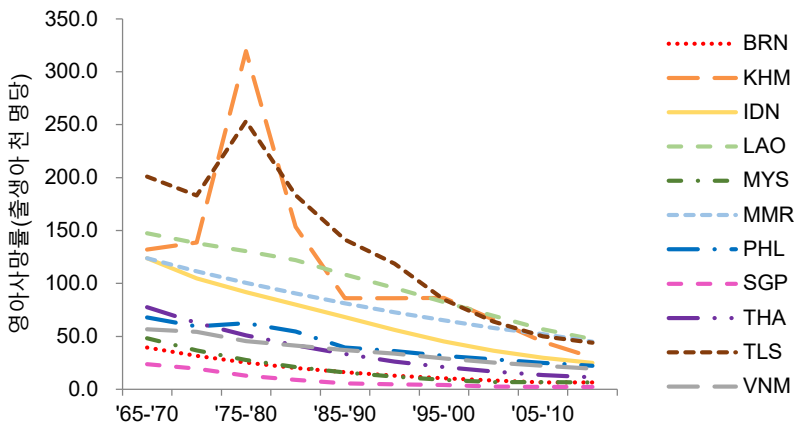


합계출산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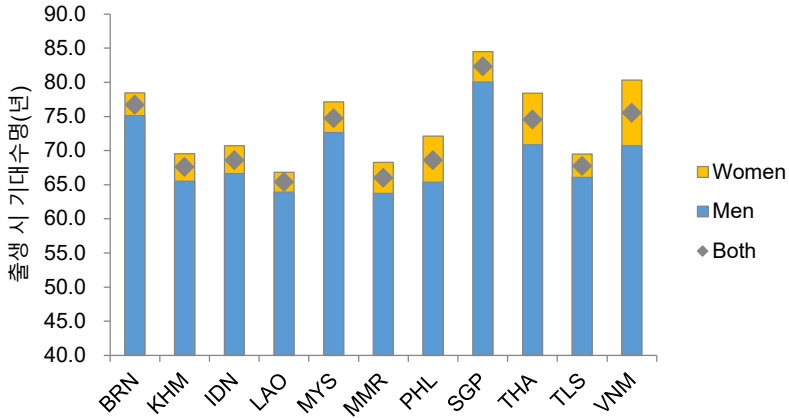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영아사망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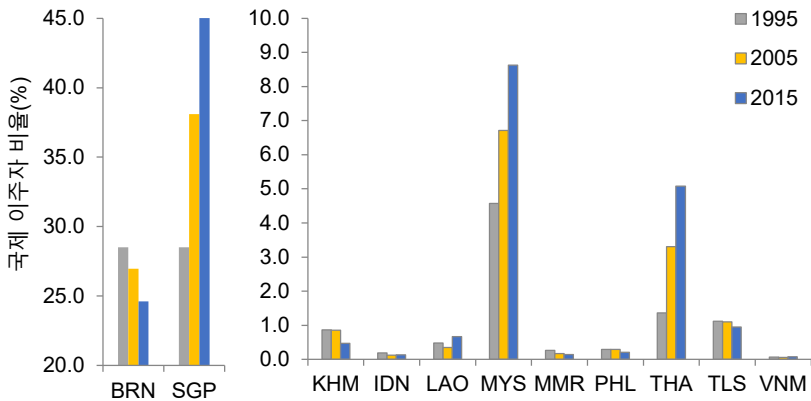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출생 시 기대수명, 2010~2015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국제 이주자 비율



자료: International Migrant Stock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

동남아시아 지역의 인구통계

인구 규모와 인구밀도

-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015년 약 25,816만 명으로 동남아시아 전체 인구의 약 40.7%를 차지하고 있다.
- 필리핀과 베트남은 2015년 각각 10,172만 명과 9,357만 명의 인구로 인도네시아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각각 두번째와 세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으로 확인되었다.
- 싱가폴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밀집한 국가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, 2015년 1km² 내 무려 7,907.5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인구성장률

- 인도네시아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1965-1970년 2.71%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0-2015년 1.25%를 기록하였다.
- 태국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1995-2000년 1.13%를 기록한 이래로 감소하여 2010-2015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0.43%에 이르렀다.
- 동티모르는 2010-2015년 연평균 인구성장률 2.24%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인구성장을 기록하고 있다.

합계출산율

- 싱가폴의 출산율은 1975-1980년에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며, 2005-2010년 추가로 하락하여 합계출산율 1.3 이하의 초저출산 수준을 기록하였고, 2010-2015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인 여성 1인당 1.23명의 출산율을 기록하였다.
- 태국은 1960년대 초 여성 1인당 6.0명 이상의 출산율에서 2010-2015년 여성 1인당 1.53명의 출산율로 하락하였지만, 그 감소추세는 싱가폴에 비해 다소 느린 편이었다.
- 동티모르의 출산율은 2005-2010년 여성 1인당 6.53명에서 2010-2015년 여성 1인당 5.91명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.

영아사망률

- 싱가포르의 영아사망률은 2010–2015년 출생아 천명 당 2.1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.
- 반면, 라오스, 미얀마, 동티모르의 경우 2010–2015년 영아사망률이 출생아 천명 당 47.3건, 45.0건, 43.9건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.
- 베트남의 영아사망률은 1950–1955년과 2010–2015년 사이 출생아 천명 당 103.6건에서 19.3건으로 꾸준히 안정적이고 추세로 개선되어 왔다.

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

- 싱가포르의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2005–2010년 80.0세를 넘어섰으며, 2010–2015년 82.3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로 확인되고 있다.
- 동티모르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지난 50년간 평균 기대수명이 37.8년 이상 증가한 곳으로, 지난 1950–1955년 30.0세에서 2010–2015년 67.7세로 빠르게 상승하였다.
- 2010–2015년 라오스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평균 기대수명은 65.4세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.

국제 이주자 비율

- 싱가포르에서 전체 인구에 대한 국제 이주자의 비율은 1990년 24.1%에서 2017년 46.0%로 빠르게 상승하였으며,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.
- 브루나이의 국제 이주자 비율 역시,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2017년 전체 인구의 약 1/4, 25.3%를 차지하고 있다.
- 동남아시아에서는 브루나이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태국에서 전체 인구 중 국제 이주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되며, 이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모두 전체 인구의 1%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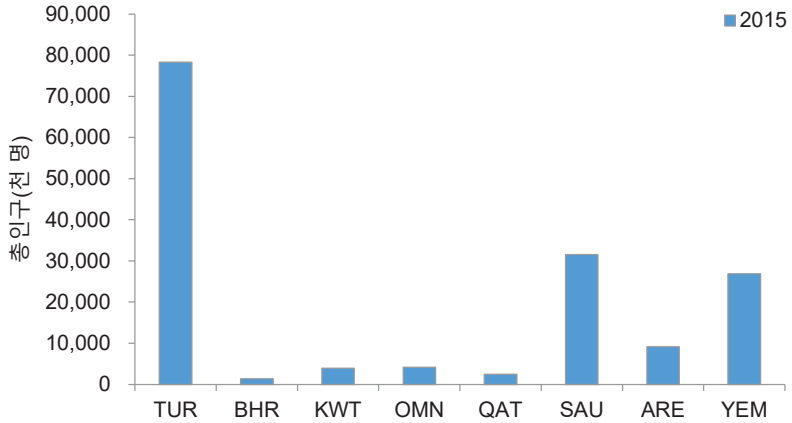


5. 서아시아 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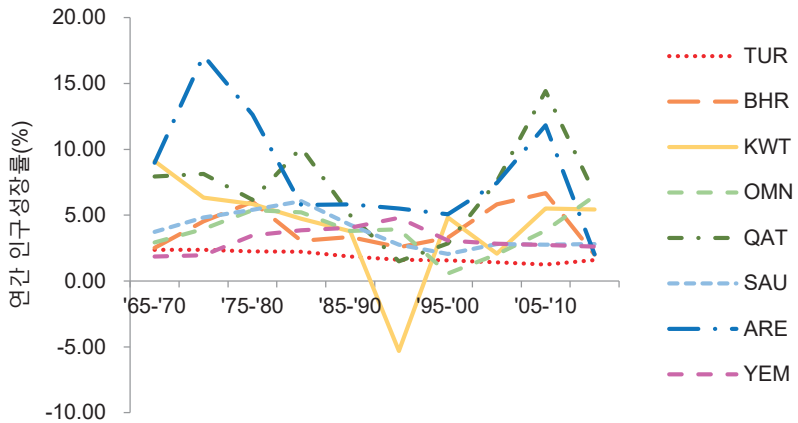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전체 인구, 2015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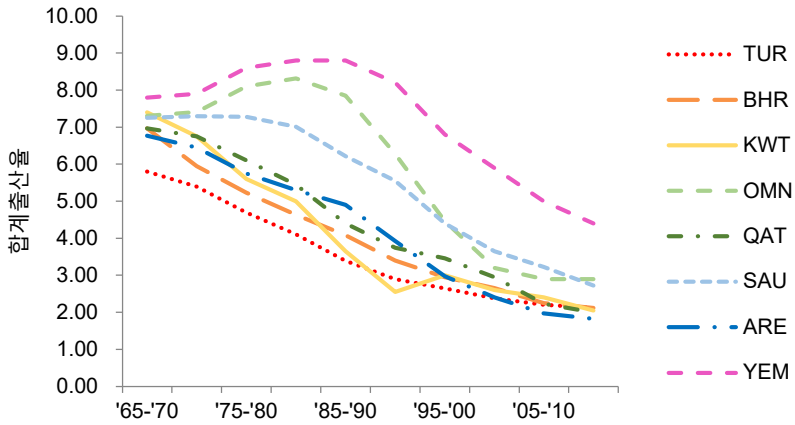
연간 인구성장률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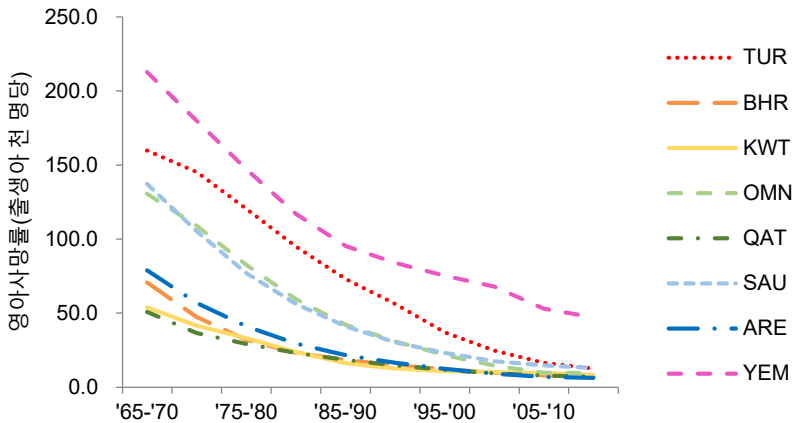


합계출산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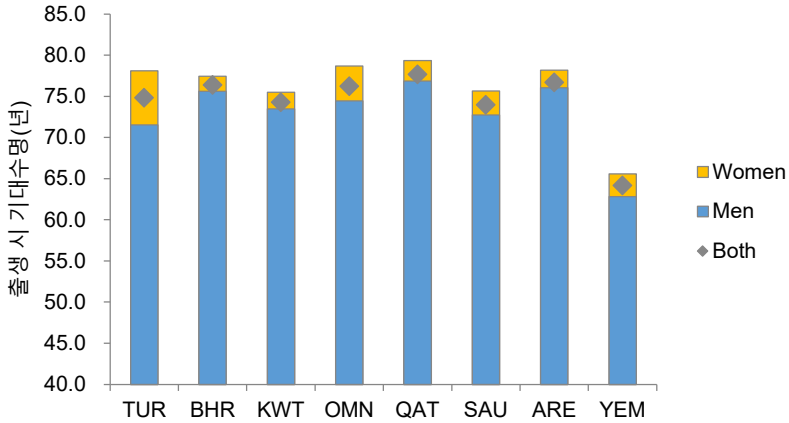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영아사망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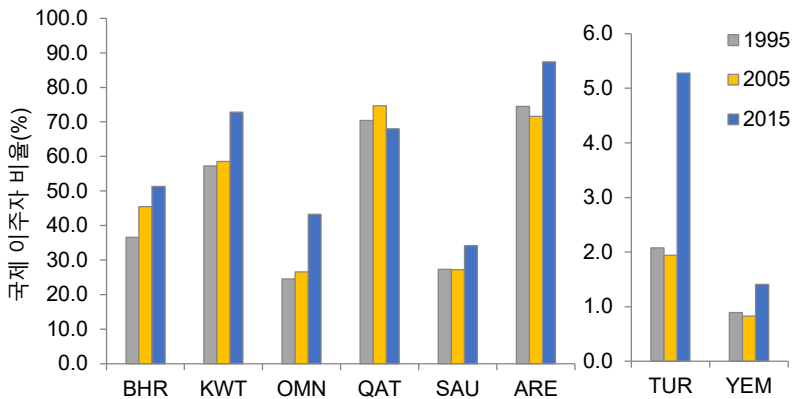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출생 시 기대수명, 2010~2015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국제 이주자 비율



자료: International Migrant Stock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

서아시아 지역의 인구통계 I

인구 규모와 인구밀도

- 터키는 2015년 7,827만 명으로 여러 나라가 모여 있는 서아시아에서 가장 큰 인구를 자랑하고있으며, 서아시아 전체 인구의 약 30%를 차지하고 있다.
- 바레인은 2015년 137만 명으로 키프로스를 제외하고 서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인구를 갖고 있지만, 1km² 내 1,805.1명으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카타르와 사우디 아라비아는 서아시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두 곳으로 1km² 내 각각 13.6명과 14.7명이 거주하고 있다.

인구성장률

- 오만과 카타르는 2010-2015년 각각 6.45%와 6.65%의 연간 인구성장률로 세계에서 인구성장이 가장 빠른 수준인 곳으로 고려되고 있다.
- 아랍에미리트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2005-2010년 11.82%에서 2010-2015년 2.03%로 빠르게 하락하였다.
- 터키는 서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구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, 연평균 인구성장률이 1985-1990년 2.26%에서 2010-2015년 1.86%로 조금 낮아졌다.

합계출산율

- 아랍에미리트는 매우 빠른 출산율 감소를 경험한 곳으로 1970-1975년 여성 1인당 6.0명 이상에서 2005-2010년 대체 수준 이하인 여성 1인당 1.97명으로 하락하였으며, 2010-2015년에는 여성 1인당 1.82명을 기록하였다.
- 터키의 출산율은 1950-1955년 여성 1인당 6.69명에서 2010-2015년 여성 1인당 2.12명으로 완만하지만 안정적인 추세로 감소하였다.
- 예멘은 2010-2015년 여성 1인당 4.40명을 기록하여 서아시아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.
- 오만은 1980-1985년 무려 여성 1인당 8.32명의 매우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0-2015년 여성 1인당 2.90명을 기록하였다.

영아사망률

- 터키는 영아사망률이 크게 개선되어 지난 1950-1955년 출생아 천명 당 216.9명에서 2010-2015년 출생아 천명 당 12.6명으로, 약 1/8 수준 이하로 감소하였다.
- 예멘의 경우, 영아사망률이 1950-1955년 출생아 천명 당 251.0명에서 2010-2015년 출생아 천명 당 47.2명으로 빠르게 감소하였으나,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.
-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는 서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현저한 영아사망률 개선 정도를 보인 곳으로 1950-1955년과 2010-2015년 사이에 96-97% 정도의 영아사망률 감소를 기록하였다.

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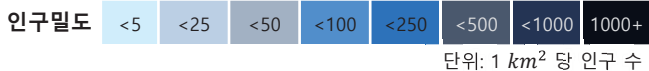
- 예멘의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2010-2015년 64.2세로, 서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.
- 오만에서 평균 기대수명은 1950-1955년 36.1세에서 2010-2015년 76.2세로 증가하였으며, 평균적으로 36.1년의 수명이 증가하였다.
- 터키 역시 평균 기대수명이 1950-1955년 47.2세에서 2010-2015년 74.8세로 증가하였으나, 다른 나라와 비교해 지난 60여 년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.

국제 이주자 비율

- 아랍에미리트는 2017년 전체 국민 중 국제 이주자의 비율이 무려 88.4%에 이르고 있으며, 이는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제 이주자 비율이다.
- 카타르 또한 전체 국민 중 국제 이주자 비율이 높은 곳 중 하나이며, 지난 2010년 국제 이주자 비율이 81.8%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65.2%로 감소하였다.
- 예멘의 경우, 2017년 국제 이주자 비율이 전체 국민의 1.4%에 그치고 있어 서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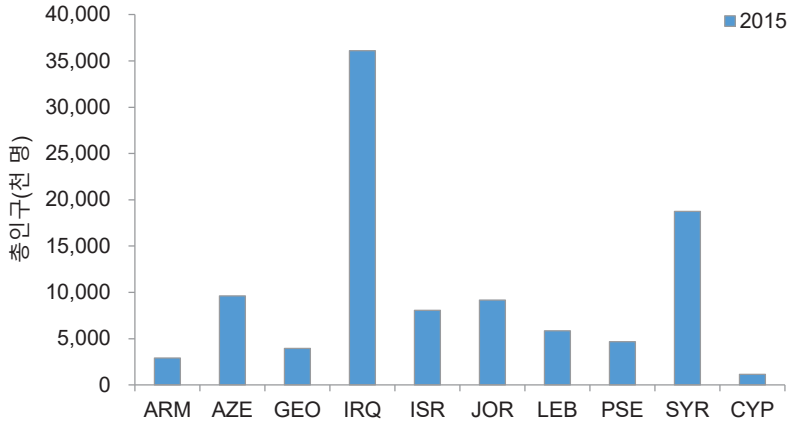


6. 서아시아 I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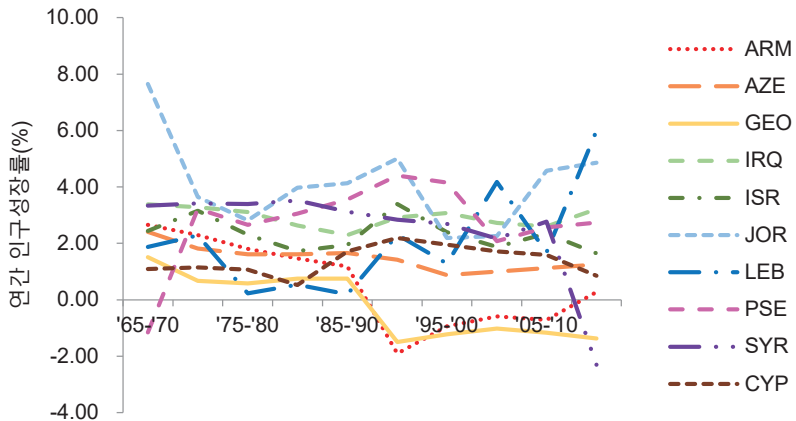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전체 인구, 2015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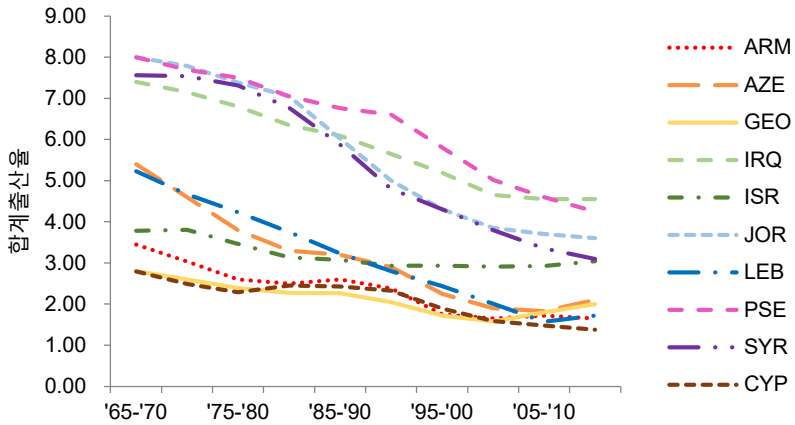
연간 인구성장률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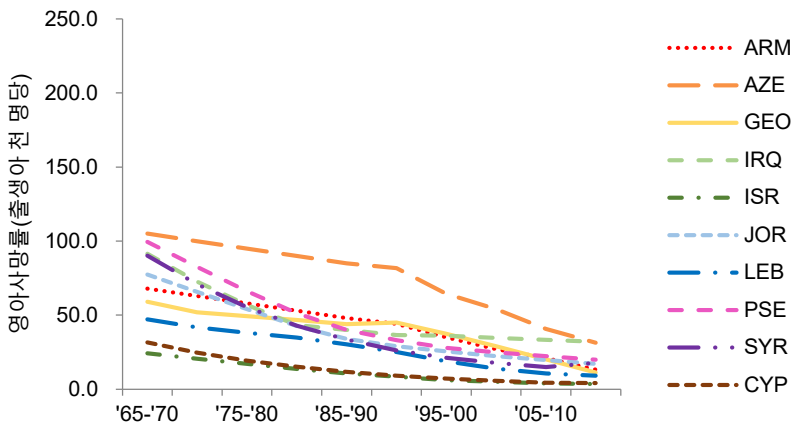


합계출산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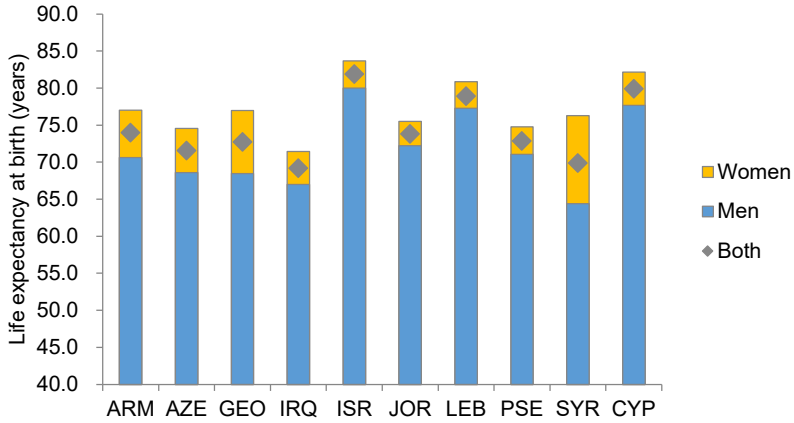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영아사망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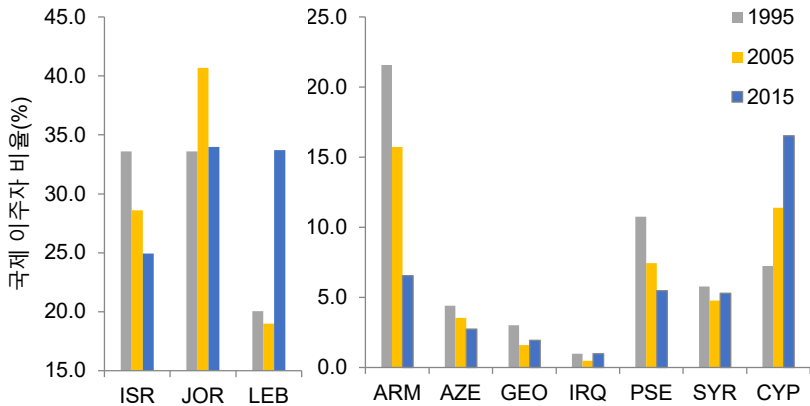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출생 시 기대수명, 2010~2015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국제 이주자 비율



자료: International Migrant Stock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

서아시아 지역의 인구통계 II

인구 규모와 인구밀도

- 이라크의 인구는 2015년 3,611만 명으로 서아시아 지역에서 인구가 두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.
- 키프로스는 2015년 116만 명의 인가로 서아시아에서 가장 적은 곳이다.
- 2015년 시리아의 인구는 1,874만명으로 102.0명/km²의 인구밀도를 기록하고 있다.
- 2015년 레바논에서는 1km² 내 572.0명이 거주하고 있어, 서아시아 국가들 중 두번째로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고 있다.

인구성장률

- 시리아는 1950년대 이후 연평균 2% 이상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며 빠른 인구성장을 경험하였지만, 지난 2005-2010년 연평균 인구성장률 2.78%에서 2010-2015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-2.30%로 급감하였다.
- 레바논은 2010-2015년 현재 연평균 5.99%의 매우 빠른 인구성장률을 보이고 있다.
- 조지아는 1990-1995년 이래 꾸준히 인구가 감소해 왔으며, 2010-2015년 연평균 인구성장률 역시 -1.37%로 인구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.
- 아르메니아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인구가 감소하는 마이너스 인구성장률을 경험하였으나, 2010-2015년 마침내 0.27%의 연간 인구성장률을 기록하여 인구가 증가하였다.

합계출산율

- 레바논은 1950-1955년부터 2005-2010년까지 합계출산율이 여성 1인당 5.74명에서 1.58명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였으나, 이후 반등하여 2010-2015년 여성 1인당 1.72명을 기록하고 있다.
- 이라크는 2010-2015년 여성 1인당 4.55명의 출산율로 서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.
- 키프로스의 출산율은 1995-2000년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으며, 2010-2015년 여성 1인당 1.38명을 기록하고 있다.

영아사망률

- 이라크의 영아사망률은 지난 1980-1985년 출생아 천명 당 43.3건에서 2010-2015년 출생아 천명 당 32.1건으로 일관되게 감소해 왔지만, 서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에 있다.
- 키프로스 and 이스라엘은 지난 60여 년 동안 서아시아의 다른 곳들 보다 낮은 수준의 영아사망률을 유지해 오고 있다.
- 아제르바이잔의 영아사망률은 2010-2015년 출생아 천명 당 31.4건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.
- 시리아의 영아사망률은 2005-2010년과 2010-2015년 사이에 출생아 천명 당 15.0명에서 17.9명으로 악화된 것으로 확인된다.

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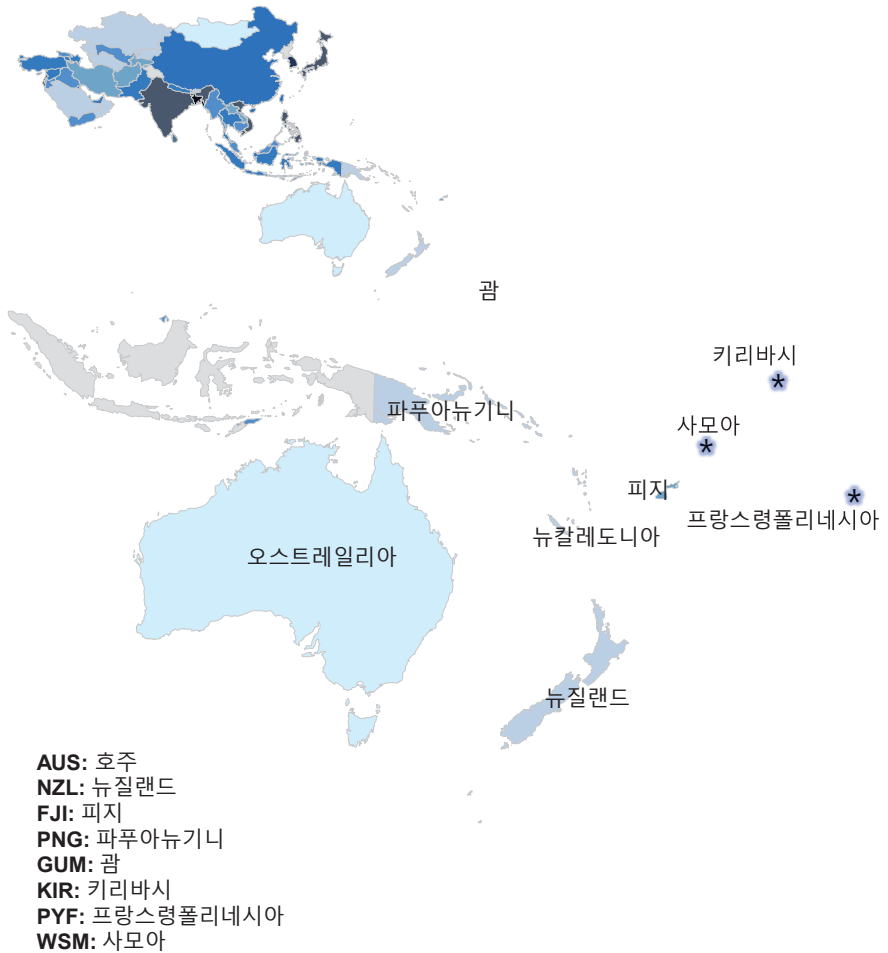
- 이라크와 시리아는 2010-2015년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이 각각 69.2세와 69.9세를 기록하며 서아시아 국가들 중 예멘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.
- 아르메니아의 평균 기대수명은 1950-1955년과 2010-2015년 사이 62.8세에서 74.2세로 상승하였으나, 11.4년의 기대수명 증가는 같은 기간 서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경험한 것에 비해 작은 편이다.

국제 이주자 비율

- 2017년 이라크의 국제 이주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1.0% 정도로 서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.
- 레바논은 국제 이주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로, 지난 2005년 전체 인구 중 국제 이주자의 비율이 40.7%로 가장 높은 시기였으며, 이후 조금씩 하락하여 2017년 33.3%를 기록하고 있다.
-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의 전체 인구 중 국제 이주자 비율은 2017년 각각 2.6%와 2.0%로 낮은 수준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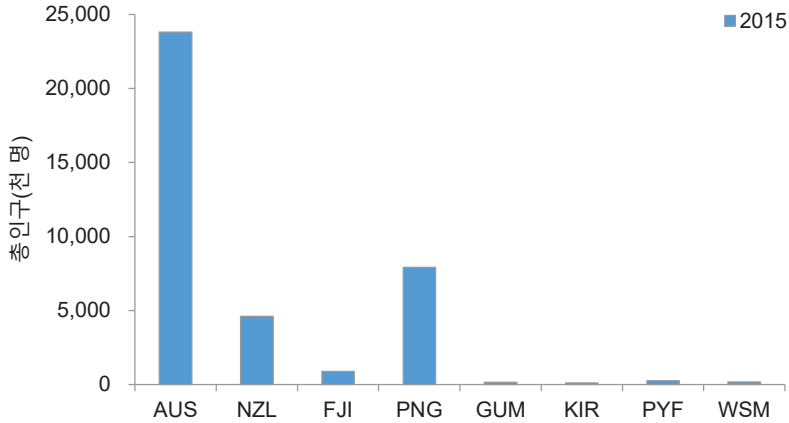


7. 오세아니아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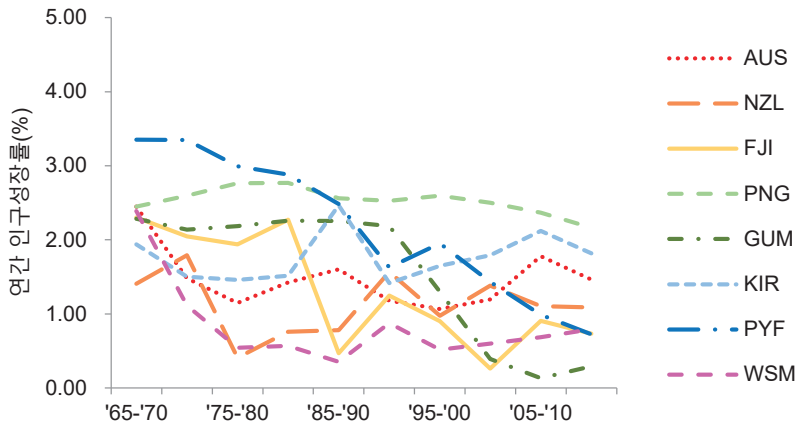
전체 인구, 2015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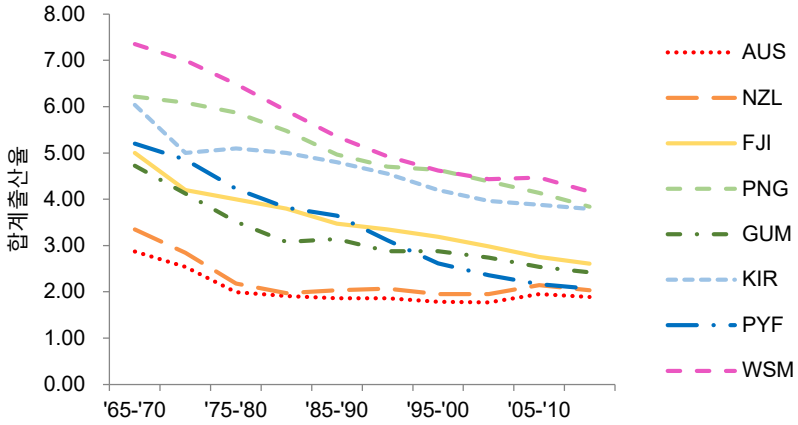
연간 인구성장률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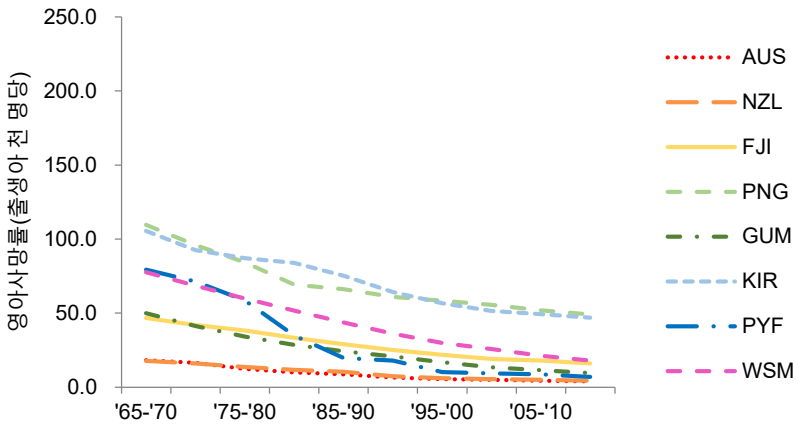


합계출산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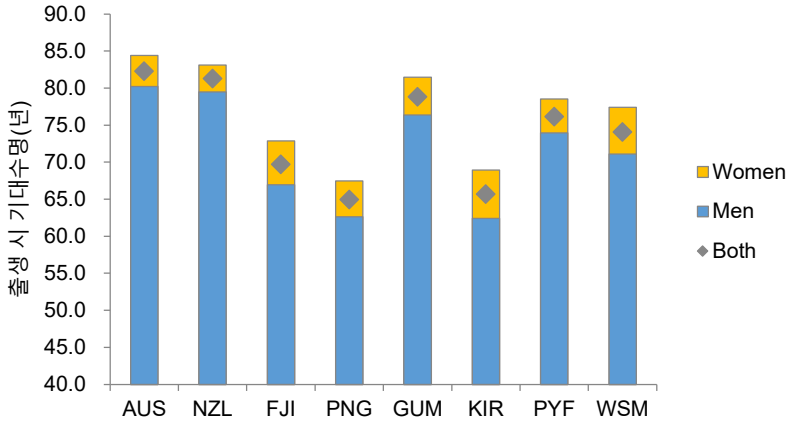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영아사망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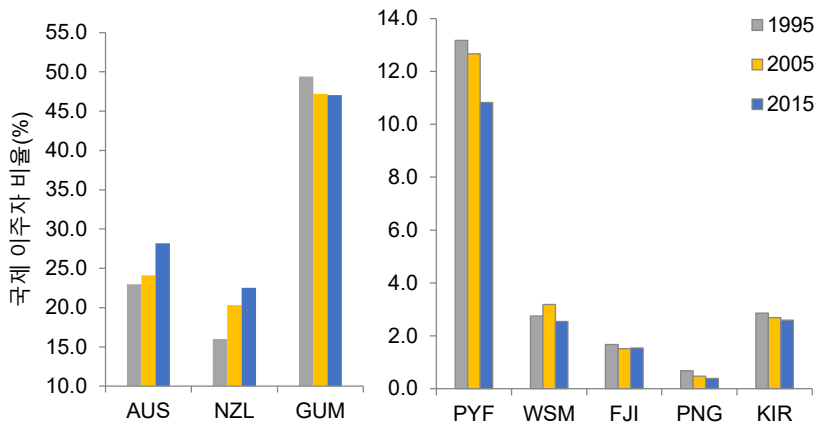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출생 시 기대수명, 2010~2015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국제 이주자 비율



자료: International Migrant Stock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

오세아니아 지역의 인구통계

인구 규모와 인구밀도

- 호주의 인구는 2015년 2,380만 명으로 오세아니아 전체 인구의 약 60%를 차지하고 있다.
- 또한, 호주는 2015년 현재 1km² 내 단지 3.1명 정도만 거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구밀도를 갖고 있다.
- 오세아니아의 괌, 마셜제도, 나우루는 1km² 내 각각 299.6명, 294.4명, 563.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, 오세아니아 지역의 다른 곳들에 비해 인구밀도가 훨씬 높은 수준이다.
- 오세아니아에서 두번째로 큰 인구를 가진 나라는 뉴질랜드로서 2015년 461만 명을 기록하였다.

인구성장률

- 호주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2010-2015년 1.46%로, 지난 2005-2010년의 1.78%에 비해 조금 감소하였다.
- 뉴질랜드의 인구는 2010-2015년 연평균 1.09%로 증가하였으며, 이는 호주에 비교해 낮은 수준이었다.
- 파푸아뉴기니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지난 20여 년 동안 완만하게 감소해 왔으며, 2010-2015년 2.16%를 기록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.

합계출산율

- 2010-2015년 오세아니아 지역의 다른 곳들은 모두 대체 수준 이상의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, 호주, 뉴질랜드, 그리고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는 대체 수준 또는 대체 수준 이하의 저출산을 기록하였다.
- 호주의 출산율은 1975-1980년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후 여성 1인당 1.7명에서 2.0명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.
- 미크로네시아의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지만, 2010-2015년 여성 1인당 3.0명 이상의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.

영아사망률

- 호주의 영아사망률은 1950-1955년 출생아 천명 당 23.7건에서 2010-2015년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낮은 3.9건으로 감소하였다.
- 뉴질랜드 역시 호주와 유사하게 1950-1955년과 2010-2015년 사이에 영아사망률이 출생아 천명 당 26.6건에서 4.4건으로 감소하였다.
- 2010-2015년 오세아니아에서 영아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파푸아뉴기니로 출생아 천명 당 16.0건을 기록하였으며, 과거 1950-1955년 출생아 천명 당 150.0건에서 크게 감소하였다.
- 오세아니아 지역 전체의 영아사망률은 지난 1950-1955년 출생아 천명 당 58.2건에서 2010-2015년 출생아 천명 당 20.8건으로 감소하였다.

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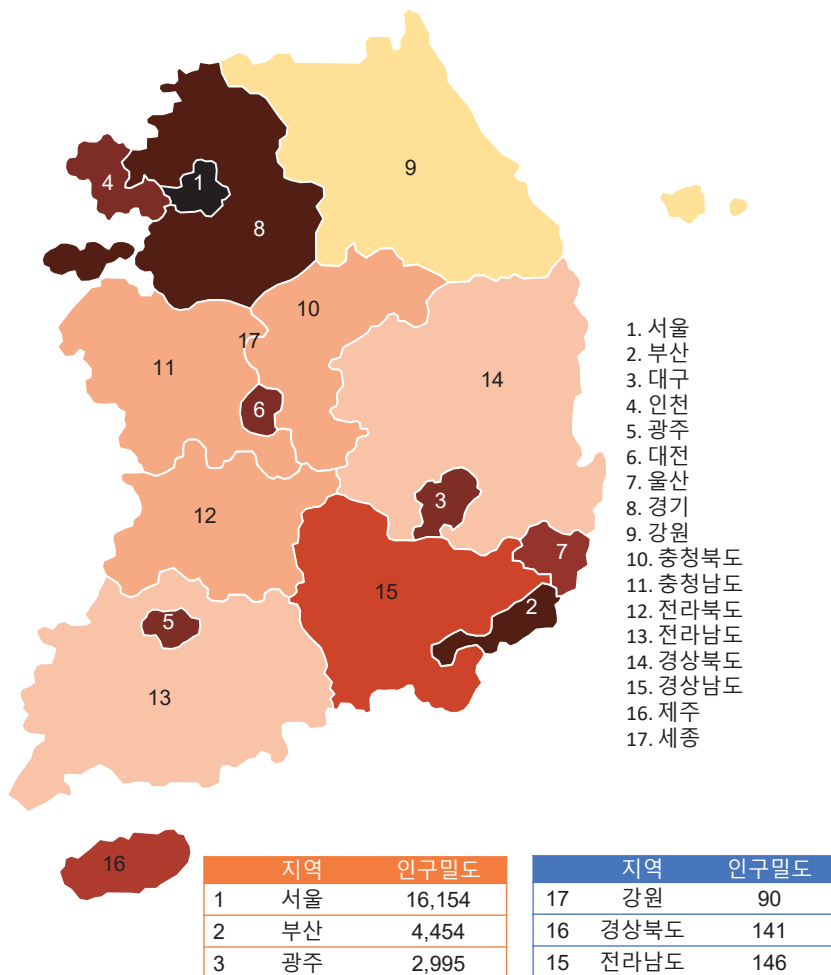
- 호주는 2010-2015년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이 약 82.3세로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.
- 뉴질랜드의 평균 기대수명은 1950-1955년 69.8세에서 2010-2015년 81.3세로 상승하여 약 12.9세의 기대수명 증가를 기록하였다.
- 파푸아뉴기니는 지난 60여 년 동안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이 약 26.7년 정도 증가하였지만, 2010-2015년 65.0세로 오세아니아에서 여전히 제일 낮은 수준이다.

국제 이주자 비율

- 호주의 국제 이주자 비율은 지난 1990년 전체 인구의 약 23.2%를 구성하였으나, 2017년에는 좀 더 상승하여 전체 인구의 27.8%를 차지하고 있다.
- 뉴질랜드에서 국제 이주자들의 구성비율은 1990년 15.2%에서 2017년 22.5%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.
- 괌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전체 인구 중 국제 이주자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으로 2017년 47.5%를 기록하였다.



8. 동아시아: 한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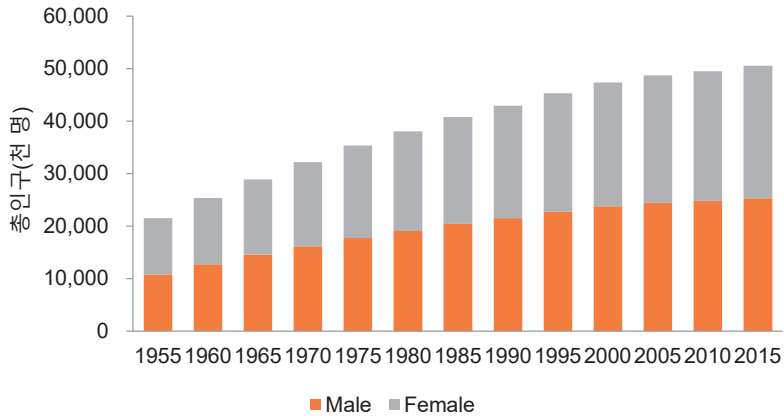


인구밀도 단위: 1 km² 당 인구 수

<100	<200	<300	<500	<300	<400	<500	<1500	<3000	<5000	5000+
총인구			51,446,000			인구밀도			513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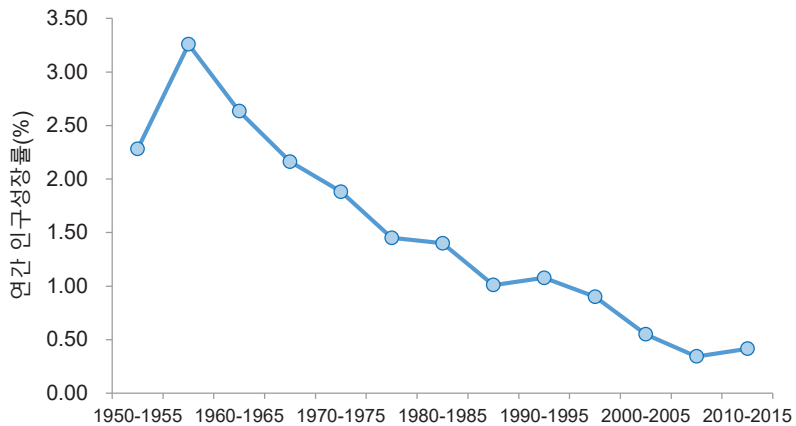
자료: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2015-2045, Statistics Korea, 2017
Cadastral Statistics,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, 2017

전체 인구와 성별 인구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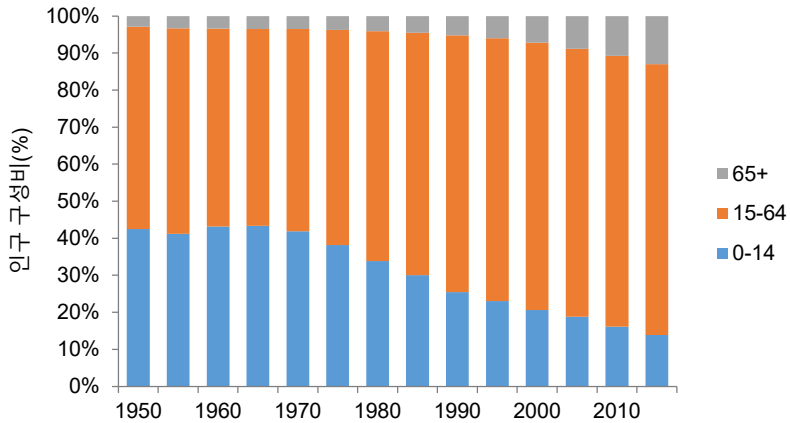
연간 인구성장률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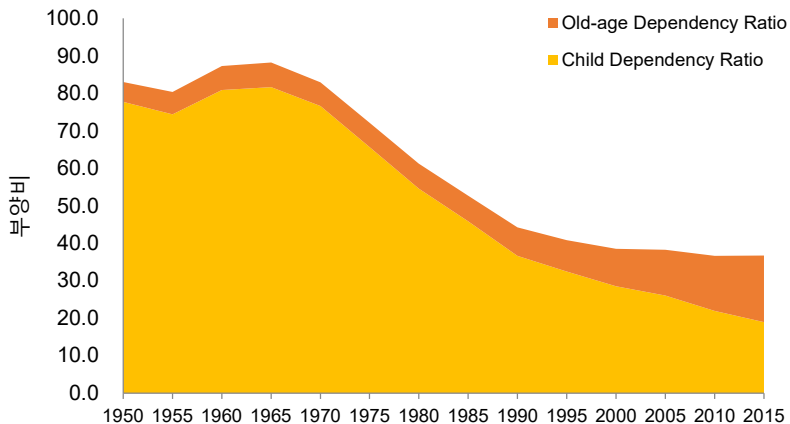


인구의 연령구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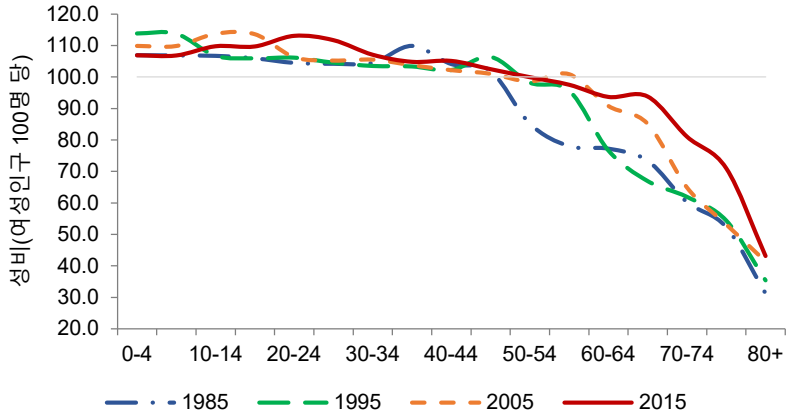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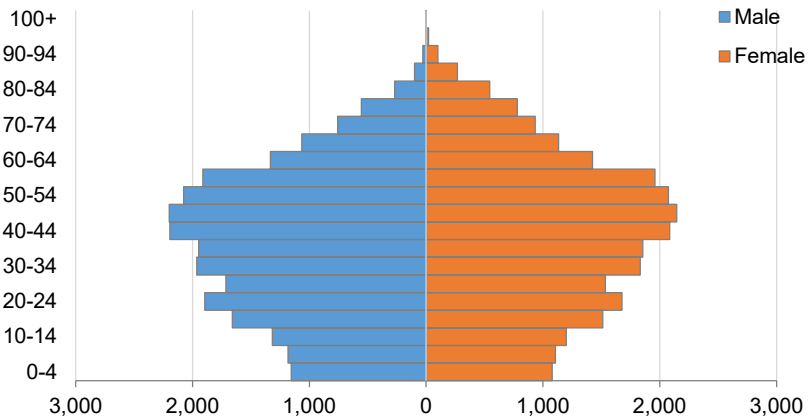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연령별 성비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인구피라미드, 2015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

한국의 인구통계 I

인구밀도

- 한국은 2015년 1km² 당 평균 51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 중 한 곳이다.
- 서울은 한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 2015년 1km² 당 16,154명이 살고있으며, 부산과 광주가 각각 4,454명/1km²와 2,995명/1km² 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.
- 강원도는 한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곳으로 2015년 1km²당 90명이 살고 있다.

인구규모

- 한국의 전체 인구는 지난 1955년 2,153만 명에서 2015년 5,059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.
- 2015년 한국 남성의 전체 인구는 2,533만 명으로 여성인구 2,527만명 보다 약 6만 여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인구성장률

- 한국의 연간 인구성장률은 1955-1960년 3.26%로 가장 높았으며, 이후 2005-2010년 0.34%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.
-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2005-2010년 연평균 0.34%에서 2010-2015년 연평균 0.42%로 조금 상승하였다.

인구의 연령구조

- 한국의 0-14세 유소년 인구는 지난 1965년 전체 인구의 43.4%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, 이후 빠르고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 전체 인구의 13.9%를 차지하였다.
- 한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950년 전체 인구의 2.9%에서 2015년 13.0%로 꾸준히 증가하였다.
- 지난 2010년은 한국에서 15-64세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73.1%로 가장 높은 시기였으며, 2015년 현재 73.1%를 차지하고 있다.

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

-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합한 한국의 전체 부양비는 지난 1950년 83.0이었으나 2015년 36.7로 감소하였다.
- 한국에서 전체 부양비는 88.2를 기록한 1965년에 가장 높았으며, 그 해는 유소년 부양비가 81.6으로 가장 높았던 해이기도 하다.
- 한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1965년 81.6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5년 19.0을 기록한 반면, 반면 1985년까지 7.0 미만으로 유지되던 노년 부양비는 2015년 17.7까지 상승하였다.
- 지난 1950년 이후 한국의 전체 부양비 변동은 주로 유소년 부양비의 변화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, 향후 노년 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해 전체 부양비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연령별 출생 성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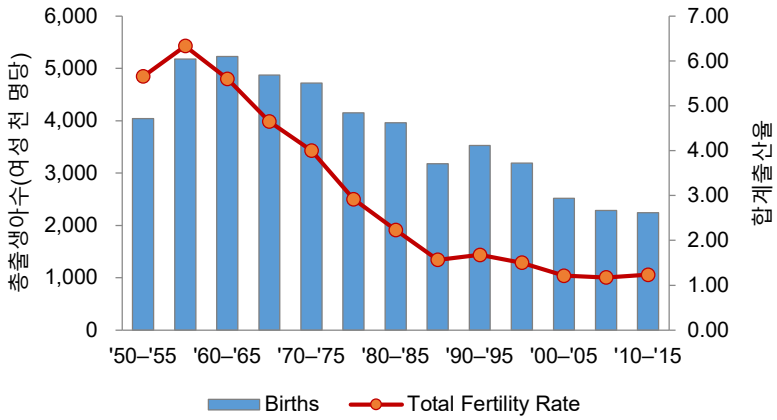
- 한국에서 80세 이상 노인 인구의 성비는 지난 1985년 여성 백명 당 남성 31.2명에서 2015년 여성 백명 당 43.1명으로 상승하였다.
- 지난 1995년 0-4세 인구의 성비는 여성 백 명당 남성 113.8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, 1990년대 초반의 출생 성비 불균형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.
- 1995년 0-4세 인구에서 발견되는 높은 출생 성비는 2005년과 2015년의 연령별 출생 성비 추세에서 각각 10세 간격을 두고 10-14세와 20-24세에서도 관찰되고 있다.

인구 피라미드

- 2015년 한국의 40-44세는 434만 명으로 5세 간격 인구 집단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집단에 속한다.
-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제외한다면, 2015년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연령 집단은 0-4세 집단이 된다.
-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지속되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항아리 모양에서 하단이 더 얇아진 정오각형 모양으로 전환되고 있으며, 가까운 미래에 전체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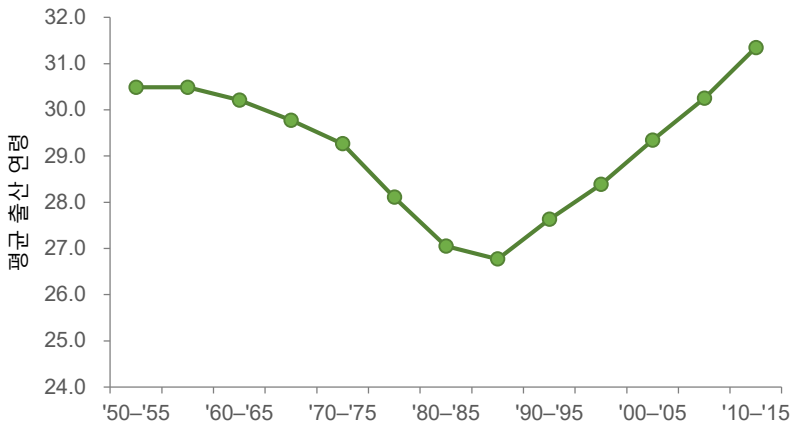


총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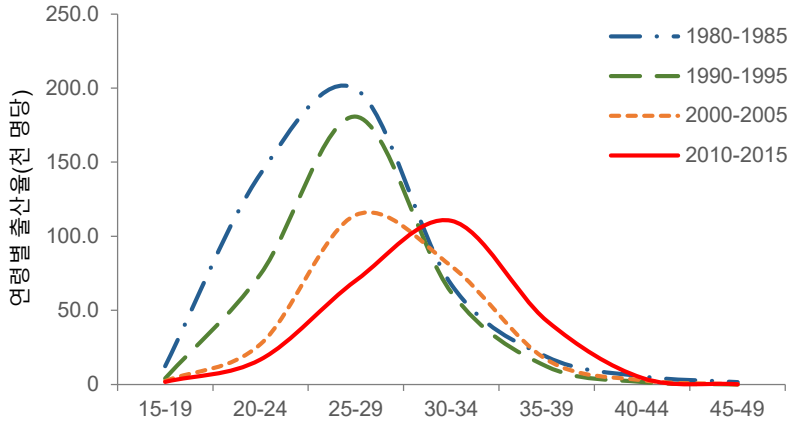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평균 출산 연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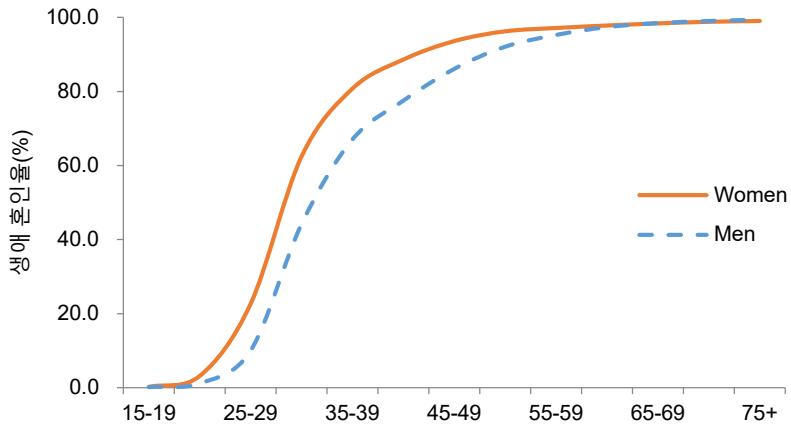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연령별 출산율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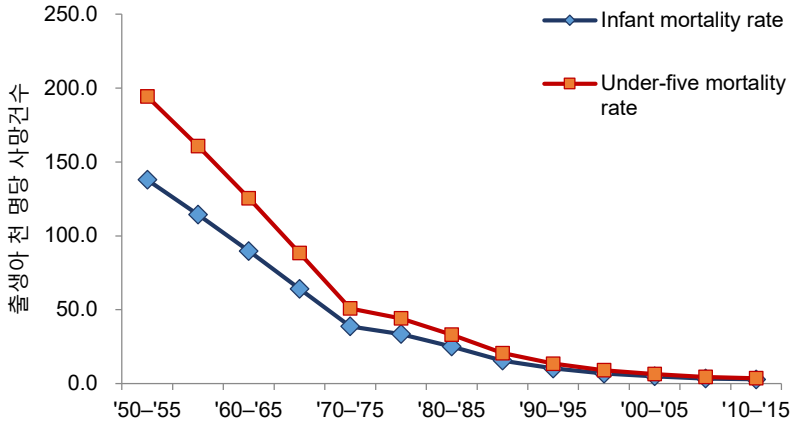
연령별 생애 혼인율, 2015



자료: Population and household census 2015, Statistics Kore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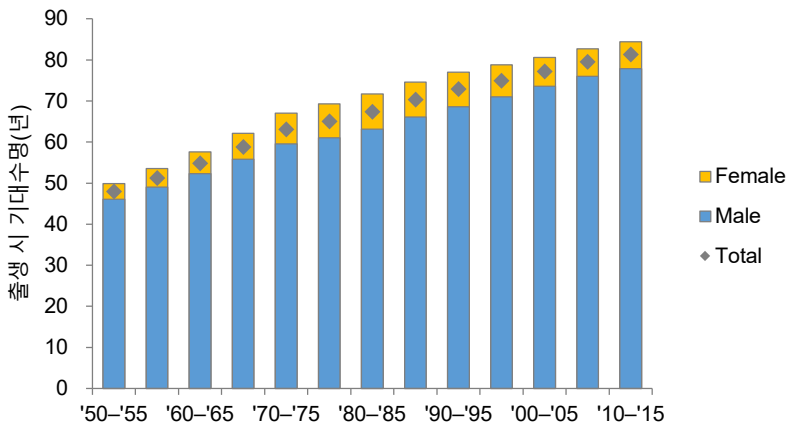


영아사망률과 5세 미만 유아사망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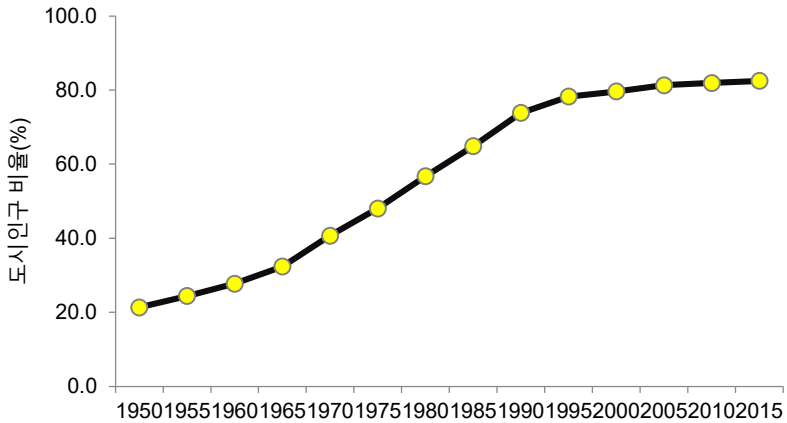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출생시 기대수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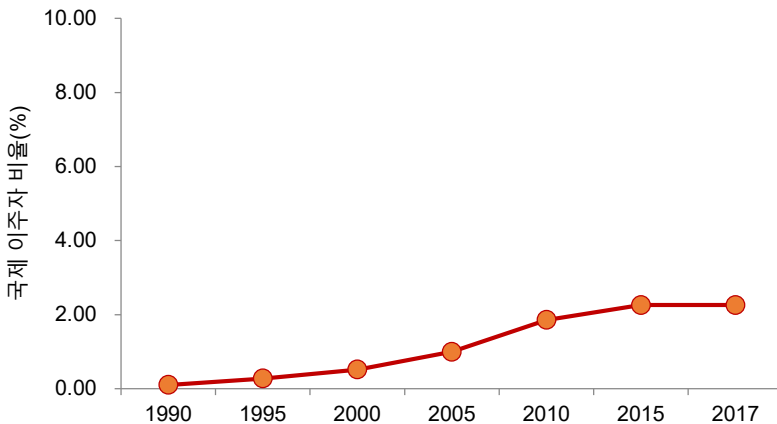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도시인구 비율



자료: World Urbanization Prospects: 2014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국제 이주자 비율



자료: International Migrant Stock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

한국의 인구통계 II

합산출산율

-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55-1960년 여성 1인당 6.33명 수준에서 1985-1990년 처음으로 대체 수준 이하로 빠르게 하락하였다.
-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1년 이후 초저출산 수준인 1.3 이하에 머무르고 있으며, 2010-2015년 여성 1인당 1.23명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.

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

- 한국 여성의 출산 시 평균 연령은 고순위 출생아의 감소로 지난 1950-1955년과 1985-1990년 사이 30.5세에서 26.8세로 감소하였다.
-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 감소세는 1985-1990년에 멈추었고, 그 이후 매년 조금씩 증가해 오고 있다.
- 결국 2010-2015년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1.3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.

연령별 출산율

- 한국에서 연령별 출산율을 나타내는 곡선은 1980-1985년과 2000-2005년 사이 출산율 감소를 나타내며 아래쪽으로 하강하였으며, 그 이후 출산 연령의 고령화가 진행되며 가로축을 따라 이동하였다.
- 1980-1985년과 2010-2015년 사이 한국에서 발생한 20대 여성의 출산율 감소는 이후 30대 여성의 출산율 증가로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다.

남녀 연령별 생애 혼인율

-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, 한국에서 45-49세 연령대 남녀 중 혼인을 경험한 비율은 남성이 86.1%, 여성이 93.6%로 과거에 비해 낮아졌으며, 보편혼의 전통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.
- 60세 미만의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생애 혼인율은 남성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영아사망률과 5세미만 유아사망률

- 한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보건 수준의 개선으로 인해 영유아 사망률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영아사망률과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이 지난 60여 년 동안 꾸준히 하락했다.
- 영아사망률의 경우 지난 1950-1955년 출생아 천명 당 138.0건이었으나 2010-2015년 출생아 천명 당 3.0건으로 보기 힘든 추세로 감소하였다.
- 5세 미만 유아사망률 역시 2010-2015년 출생아 천명 당 3.7건을 기록하였으며, 이는 지난 1950-1955년 출생아 천명 당 194.3건에서 매우 가파르게 감소한 것이다.

출생 시 기대수명

- 한국의 출생 시 기대수명은 1950-1955년 47.9세에서 2010-2015년 81.3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, 지난 60년 동안 총 33.4년의 기대수명 증가를 경험하였다.
- 2010-2015년 한국의 성별 출생 시 기대수명은 남성 77.9세에서 여성 77.9세로, 남녀 사이에 약 6.5년 정도의 기대수명 차이가 확인된다.

도시 인구 비율

- 한국 내 도시에 거주 인구의 비율은 1950년 21.4%에 불과하였으나, 1995년 78.2%까지 가파르게 증가하였고, 그 이후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되어 2015년에는 전체 인구 중 82.5%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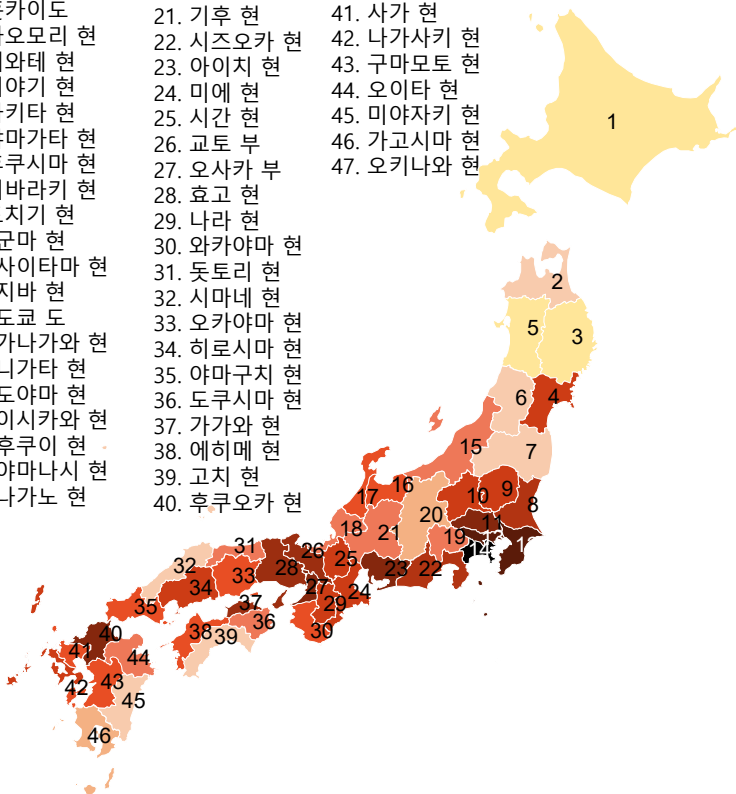
국제 이주자 비율

- 한국 전체 인구 중 국제 이주자의 비율은 1990년 0.1%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7년 2.3%로 까지 증가되었다.
- 2017년 한국의 성별 국제 이주자 비율을 살펴보면, 남성 국제 이주자는 남성 전체 인구의 2.5%, 여성의 경우는 여성 전체 인구의 1.9%를 차지하여, 남성 국제 이주자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.



9. 동아시아: 일본

-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. 홋카이도 | 21. 기후 현 | 41. 사가 현 |
| 2. 아오모리 현 | 22. 시즈오카 현 | 42. 나가사키 현 |
| 3. 이와테 현 | 23. 아이치 현 | 43. 구마모토 현 |
| 4. 미야기 현 | 24. 미에 현 | 44. 오이타 현 |
| 5. 아키타 현 | 25. 시간 현 | 45. 미야자키 현 |
| 6. 야마가타 현 | 26. 교토 부 | 46. 가고시마 현 |
| 7. 후쿠시마 현 | 27. 오사카 부 | 47. 오키나와 현 |
| 8. 이바라키 현 | 28. 효고 현 | |
| 9. 도치기 현 | 29. 나라 현 | |
| 10. 군마 현 | 30. 와카야마 현 | |
| 11. 사이타마 현 | 31. 돗토리 현 | |
| 12. 지바 현 | 32. 시마네 현 | |
| 13. 도쿄 도 | 33. 오카야마 현 | |
| 14. 가나가와 현 | 34. 히로시마 현 | |
| 15. 니가타 현 | 35. 야마구치 현 | |
| 16. 도야마 현 | 36. 도쿠시마 현 | |
| 17. 이시카와 현 | 37. 가가와 현 | |
| 18. 후쿠이 현 | 38. 에히메 현 | |
| 19. 야마나시 현 | 39. 고치 현 | |
| 20. 나가노 현 | 40. 후쿠오카 현 | |



지역	인구밀도
1 도쿄 도	6,168.1
2 오사카 부	4,639.9
3 가와나와 현	3,778.2

지역	인구밀도
47 홋카이도	68.6
46 이와테 현	83.8
45 아키타 현	87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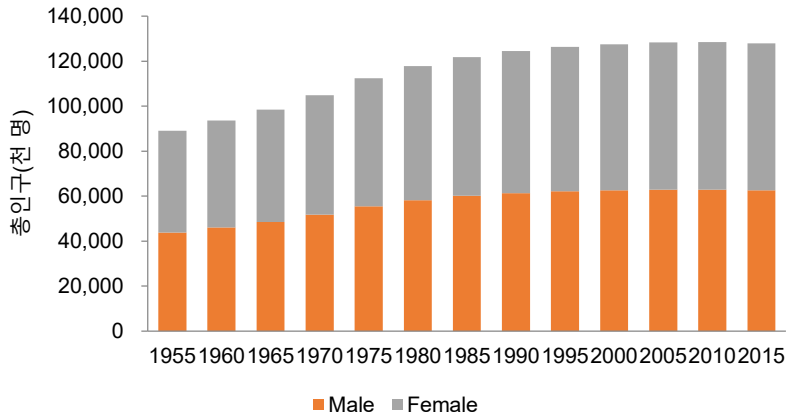
인구밀도



총인구	127,110,000	인구밀도	340.8
-----	-------------	------	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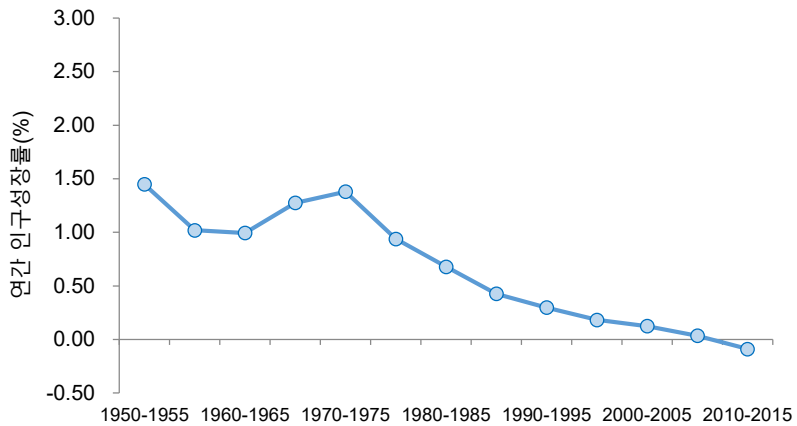
자료: Statistical Yearbook 2017, Statistics Bureau of Japan, 2017

전체 인구와 성별 인구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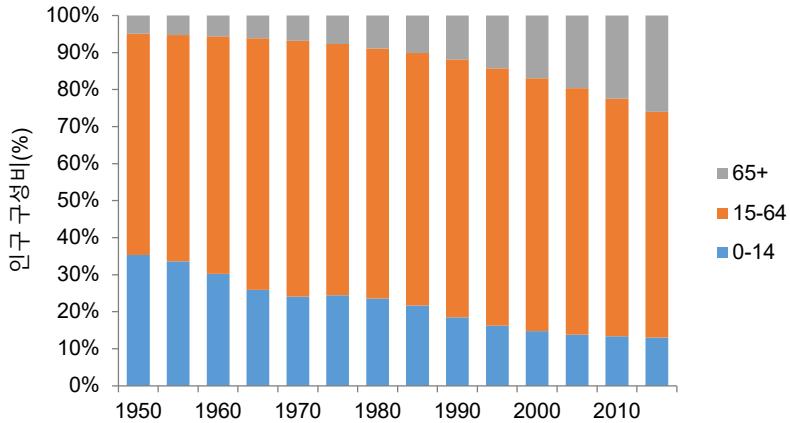
연간 인구성장률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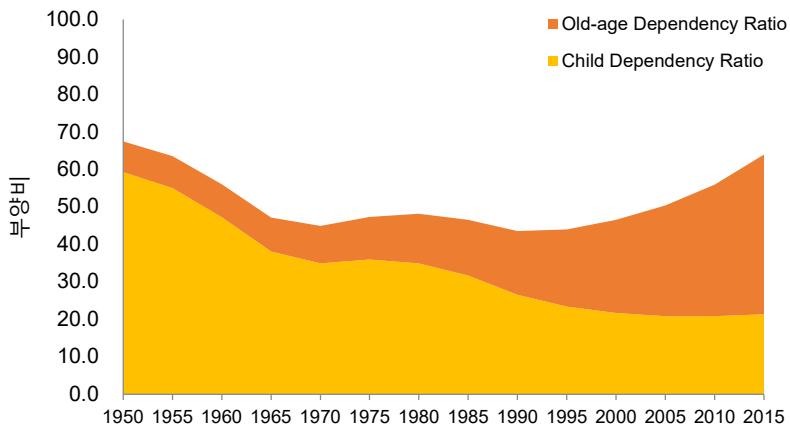


인구의 연령구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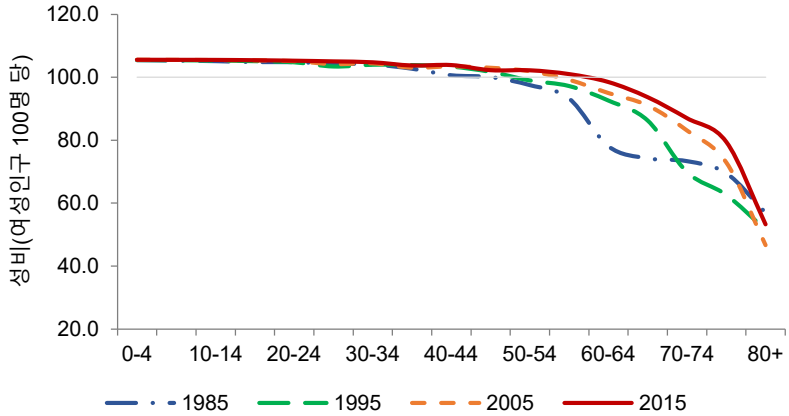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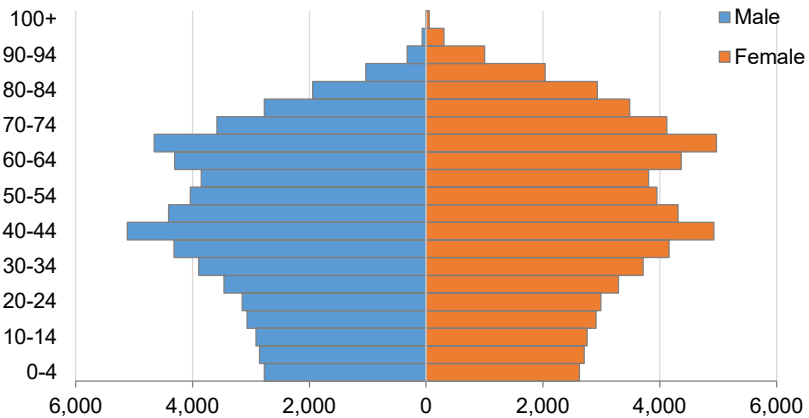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연령별 성비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인구피라미드, 2015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

일본의 인구통계 I

인구밀도

- 일본의 2015년 인구밀도는 340.8명/1km²이다.
- 도쿄는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한 도시로서 2015년 1km² 당 6,168.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, 그 다음으로 오사카와 카나가와가 각각 4,639.1명/1km² 와 3,778.2명/1km²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.
- 홋카이도는 2015년 현재 1km² 당 68.6명이 살고 있어서 일본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곳이며, 이와테와 아키타가 각각 83.6명/1km² and 87.9명/1km²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.

인구규모

- 일본의 2015년 전체 인구는 약 1억 2,798만 명으로 과거 1955년 890만 명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.
- 일본의 2015년 여성 전체 인구는 약 6,545만 명으로 남성 전체 인구 6,252만 명 보다 약 3백만 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인구성장률

- 1970-1975년 일본의 인구성장률은 연평균 1.38%로 1950-1955년 인구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1.45%에 비해 조금 낮아졌다.
- 일본의 연간 인구성장률은 1970-1975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였으며, 특히 2010-2015년 인구성장률은 -0.09%를 기록하여 전체 인구의 감소를 경험하였다.

인구의 연령구조

-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950년 전체 인구의 4.9%에서 2015년 26.0%로 무려 5배 이상 증가하였다.
- 일본에서는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%를 넘어선 이후, 종종 초고령사회로 불리기도 한다.
- 지난 1955년, 일본의 유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/3을 차지하였으나, 그 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 전체 인구의 13.0%를 기록하고 있다.
- 2015년 일본의 15-64세 생산가능 인구는 전체 인구의 61.0%를 구성하고 있다.

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

-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합한 전체 부양비는 지난 1990년 43.6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5년 64.0까지 증가하였다.
- 일본의 유소년 부양비는 오랜 하향세 속에 2005년 20.8로 바닥을 치고, 이후 조금씩 반등하여 2015년 21.3을 기록하였다.
- 지난 1950년과 2015년 사이 일본의 노년 부양비는 8.2에서 42.7로 감소하였다.

연령별 출생 성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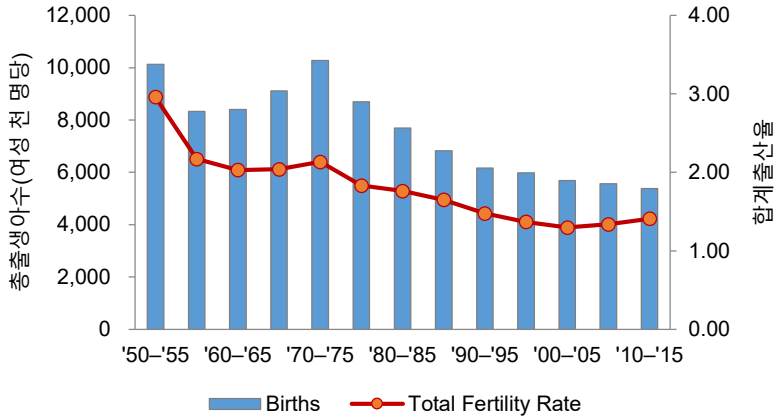
- 지난 30여 년 동안 일본의 연령별 성비는 85세 이상 인구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 집단에서 증가하였다.
- 지난 1985년과 2016년 사이 0-4세 어린이 인구의 성비는 여성 100명 당 105.5명 근처에서 유지되고 있어, 동아시아의 일부 다른 국가에서 확인되는 불균등한 출생성비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.

인구 피라미드

- 2015년 일본의 피라미드는 하단이 상대적으로 좁은 방추형을 띄고 있으며, 감소하는 인구를 반영하고 있다.
- 2015년 일본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연령대는 약 천만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40-44세 집단이며, 960만 명 정도의 65-69세 연령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.
- 일본의 5세 간격 인구 집단을 비교할 경우, 20세 미만의 연령 집단은 모두 30대 또는 40대의 연령 집단 보다 인구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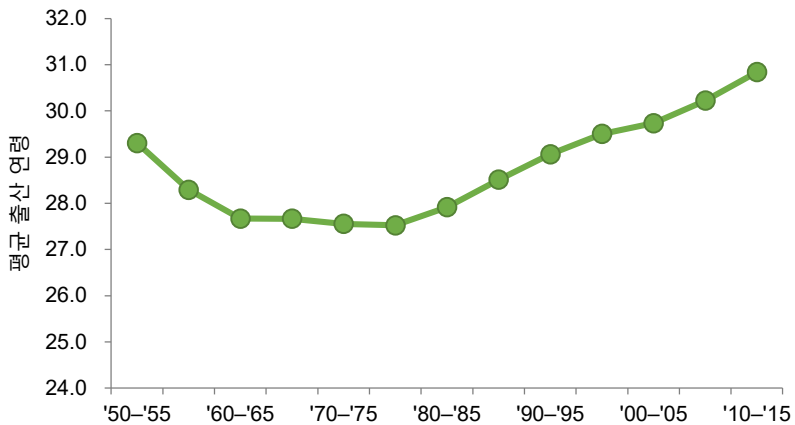


총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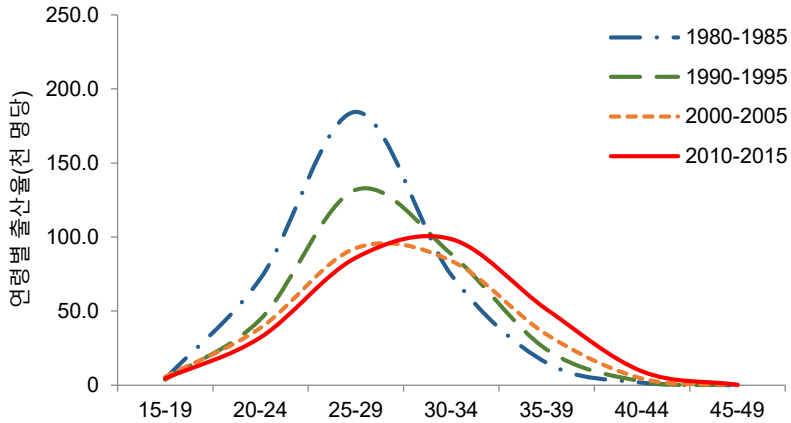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평균 출산 연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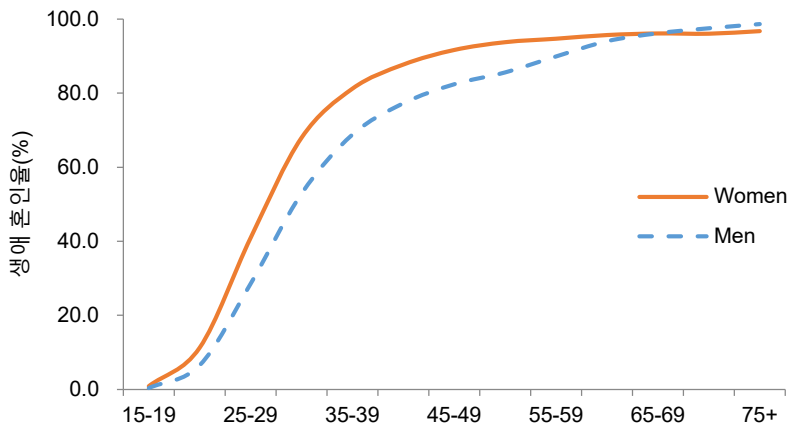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연령별 출산율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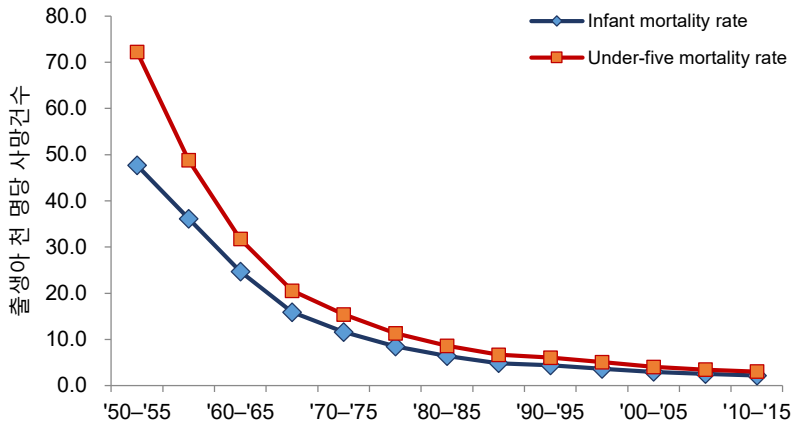
연령별 생애 혼인율, 2005



자료: World Marriage Data 2015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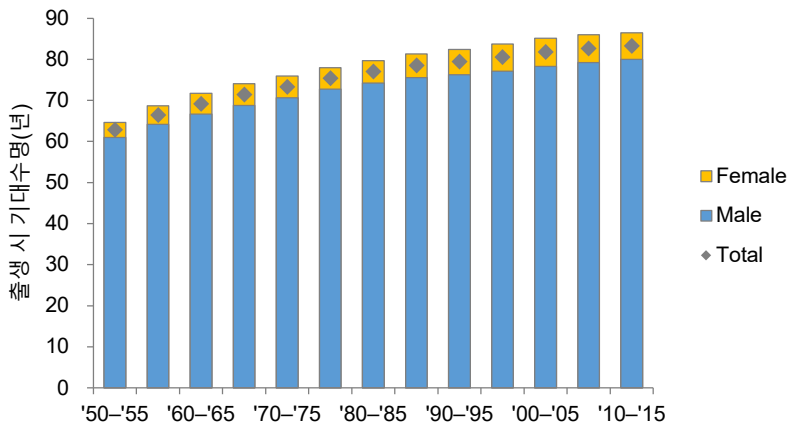


영아사망률과 5세 미만 유아사망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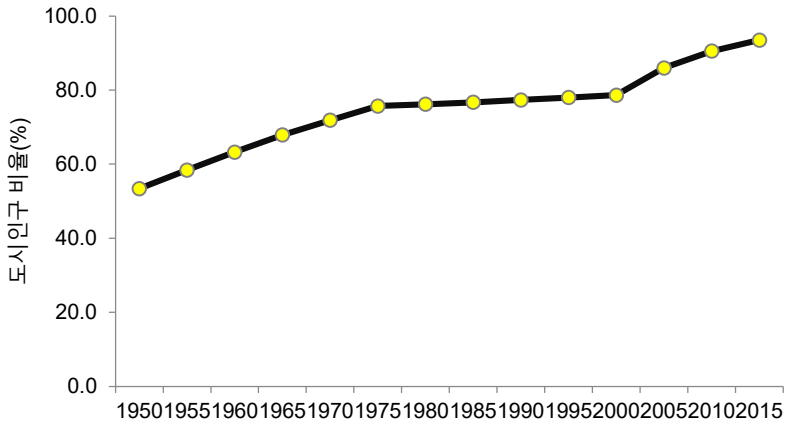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출생시 기대수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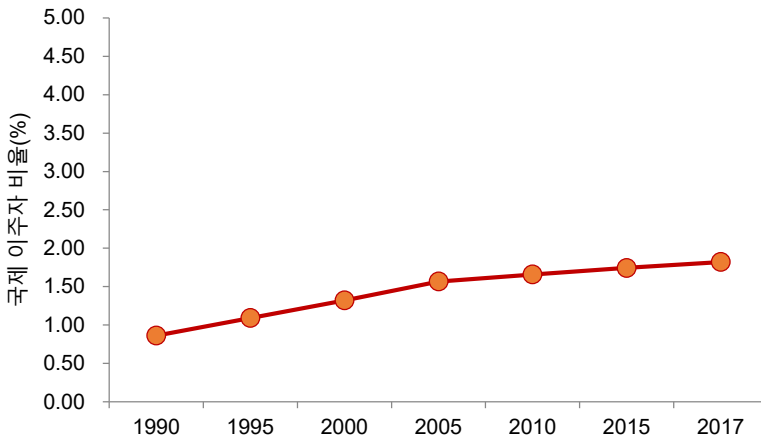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도시인구 비율



자료: World Urbanization Prospects: 2014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국제 이주자 비율



자료: International Migrant Stock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

일본의 인구통계 II

합산출산율

-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55-1960년 여성 1인당 평균 2.95명 수준에서 1975-1980년 대체 수준 이하인 여성 1인당 1.83명으로 하락하였다.
- 일본의 출산율은 2000-2005년에 역대 최저 수준인 여성 1인당 평균 1.30명에서 2010-2015년 여성 1인당 1.41명 수준으로 반등하였다.
- 일본의 총출생아수는 지난 1950-1955년 한해 1,000만 명 수준에서 2010-2015년 절반에 가까운 540만명으로 감소하였다.

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

- 일본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1950-1955년과 1960-1965년 사이에 29.3세에서 27.7세로 하락하였고, 1980-1985년 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정체기를 겪은 후 최근까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.
- 결과적으로 2010-2015년 일본 여성의 출산 시 평균 연령은 30.8세로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.

연령별 출산율

- 1980-1985년과 2010-2015년 사이, 일본의 25-29세 여성 출산율은 여성 천 명당 184.5명에서 86.0명으로 감소하였으며, 이는 같은 기간 30-34세 여성 출산율이 여성 천 명당 74.3명에서 98.5명으로 상승한 것과 분명히 대조되고 있다.
- 일본의 연령별 출산율 곡선은 1980-1985년과 2000-2005년 사이에는 수직으로 하강 이동하였고, 이후 2000-2005년과 2010-2015년 사이에는 고연령 방향으로 수평이동하였다.
- 1980-1985년과 2000-2005년 사이에 관찰되는 일본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변화는 주로 출산율 감소에 의한 것이었으며, 그 이후 2000-2005년과 2010-2015년 사이의 연령별 출산율 변화는 여성 출산 연령의 고령화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.

남녀 연령별 생애 혼인율

- 지난 2005년 일본에서 45~49세까지 혼인한 인구의 비율은 남성 82.4%, 여성 91.7%로 나타났다.
- 여성의 생애 혼인율은 65세 미만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의 생애 미혼율 보다 높았으나,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반대로 남성의 생애 미혼율이 여성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.

영아사망률과 5세미만 유아사망률

- 2010~2015년 일본의 영아사망률은 인구 천 명당 2.2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며, 과거 1950~1955년의 인구 천 명당 47.7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.
- 일본의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은 마찬가지로 1950~1955년 인구 천 명당 72.2건에서 2010~2015년 인구 천 명당 3.1건으로 감소하였다.

출생 시 기대수명

- 일본의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2010~2015년 83.3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.
- 1950~1955년과 2010~2015년 사이 일본의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이 61.0세에서 80.0세로, 여성이 64.6세에서 86.4세로 각각 19.0년과 21.8년 증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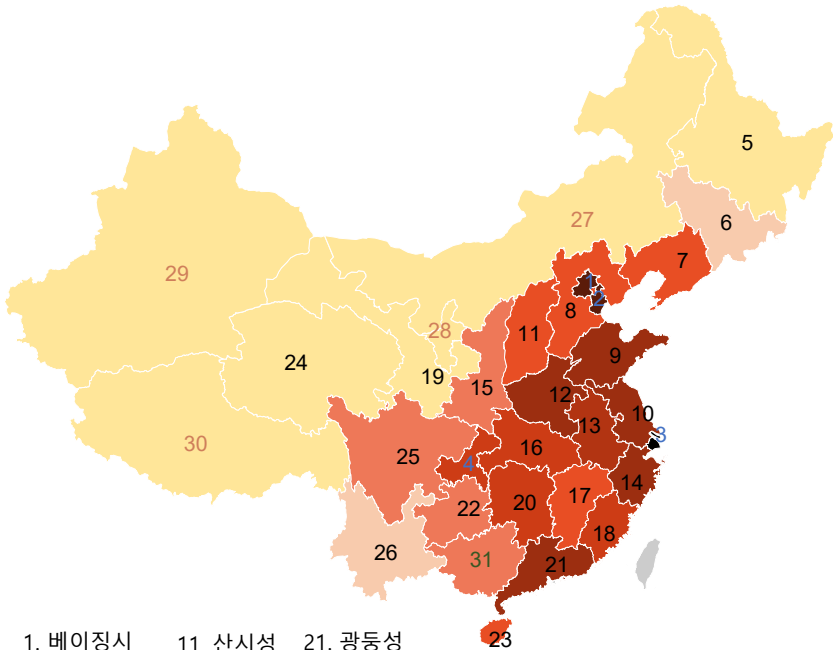
도시 인구 비율

- 일본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은 1950년에 이미 53.4%를 기록하였으며, 그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93.5%에 이르고 있다.

국제 이주자 비율

- 일본 전체 인구 중 국제 이주자의 비중은 1990년과 2017년 사이에 0.9%에서 1.8%로 조금 상승하였다.

10. 동아시아: 중국



-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. 베이징시 | 11. 산시성 | 21. 광둥성 |
| 2. 톈진시 | 12. 허난성 | 22. 구이저우성 |
| 3. 상하이시 | 13. 안후이성 | 23. 하이난성 |
| 4. 충칭시 | 14. 저장성 | 24. 칭하이성 |
| 5. 헤이룽장성 | 15. 산시성 | 25. 쓰촨성 |
| 6. 지린성 | 16. 후베이성 | 26. 윈난성 |
| 7. 랴오닝성 | 17. 장시성 | 27. 네이멍구자치구 |
| 8. 허베이성 | 18. 푸젠성 | 28. 닝샤회족자치구 |
| 9. 산둥성 | 19. 간쑤성 | 29. 신장웨이우얼자치구 |
| 10. 장쑤성 | 20. 후난성 | 30. 시짱자치구(티베트) |
| | | 31. 광시좡족자치구 |

지역	인구
1 상하이 시	3808.8
2 베이징 시	1322.9
3 톈진 시	1298.1

지역	인구밀도
31 시짱자치구	2.6
30 칭하이 성	8.1
29 신장웨이우얼자치구	14.2

인구밀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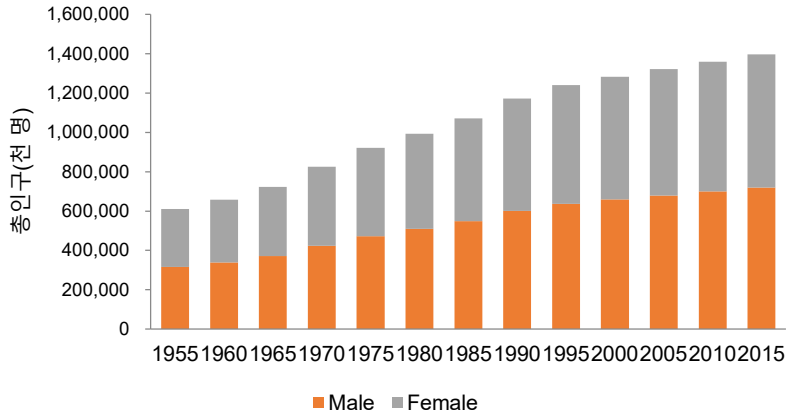
<100	<150	<180	<200	<300	<400	<500	<800	<1000	<2000	2000+
------	------	------	------	------	------	------	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

총인구	1,374,620,000	인구밀도	142.9
-----	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

Source : (Area) Wikipedi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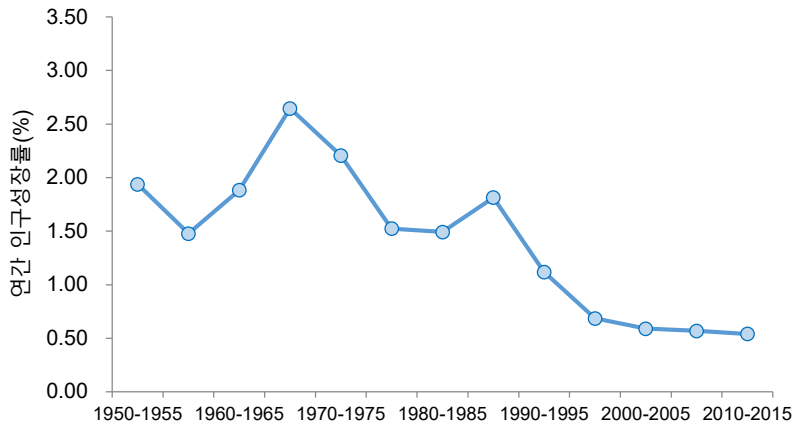
(Population) Chania Statistical Yearbook 2016,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, 2016

전체 인구와 성별 인구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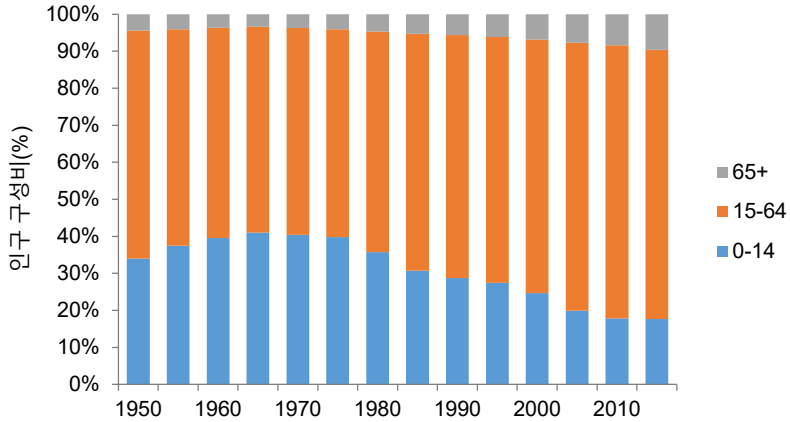
연간 인구성장률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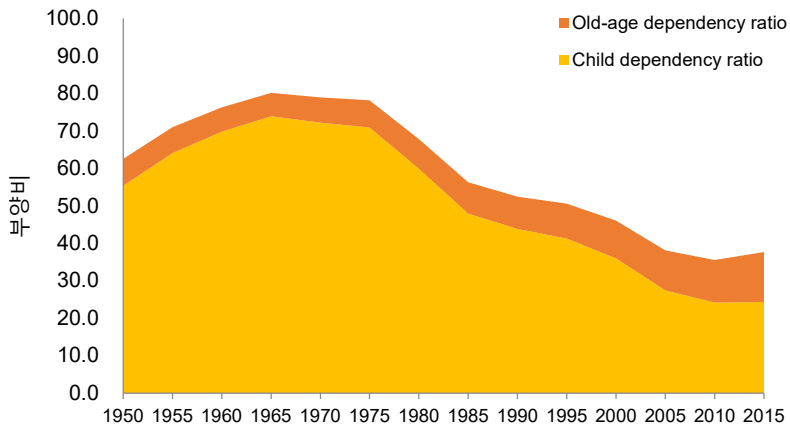


인구의 연령구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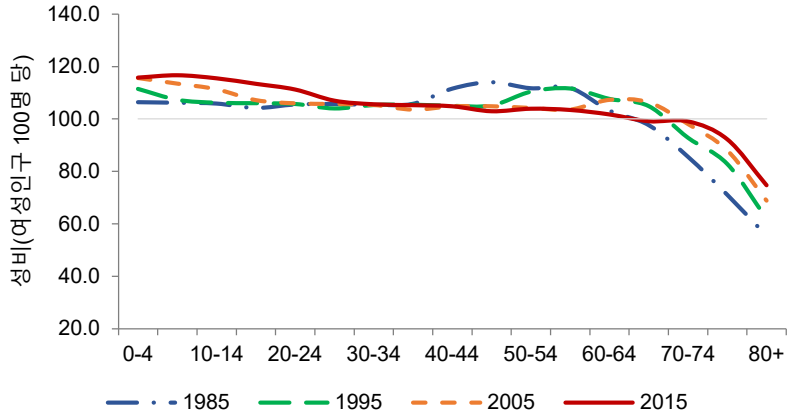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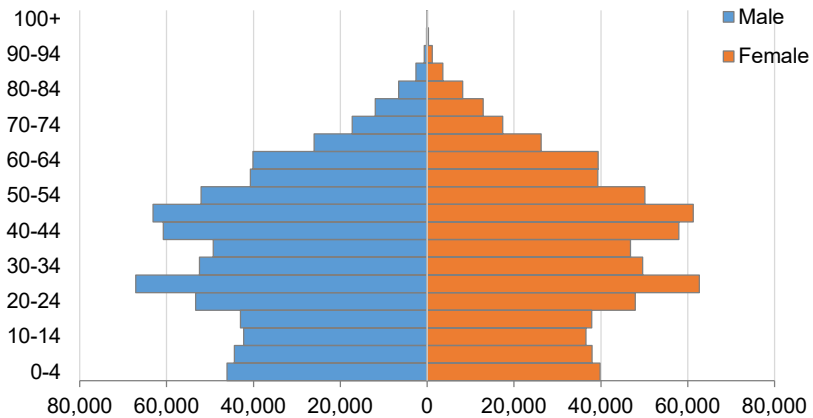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연령별 성비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인구피라미드, 2015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

중국의 인구통계 I

인구밀도

- 중국의 인구밀도는 2015년 1km² 당 평균 142.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,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동부 대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전체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.
- 2015년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도시는 상하이로 3,808.8명/1km²의 인구밀도를 기록하였으며, 1,322.9명/1km²의 베이징과 1,298.1명/1km²의 톈진이 그 뒤를 잇고 있다.
- 티베트의 2015년 인구밀도는 2.6명/1km²으로 중국 내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, 8.1명/1km²의 칭하이와 14.2명/1km²의 신장 순으로 이어졌다.

인구규모

-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, 지난 1955년 전체 인구가 총 6,108만 명에서 2015년 1억 3,97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.
- 2015년 중국의 남성 전체 인구는 7,198만명으로, 여성 전체 인구 6,773만명에 비해 4,249만 명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인구성장률

- 중국의 연간 인구성장률은 1965-1970년 2.65%에서 2010-2015년 0.54%로 감소하였다.
- 지난 1995-2000년 이래 중국의 연간 인구성장률은 0.54%에서 0.69%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.

인구의 연령구조

- 중국 인구의 연령구조의 변화 추세가 전환되기 시작한 1965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은 55.5%였으며,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72.6%를 기록하였다.
-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1965년 41.0%에서 2015년 17.7%로 감소하였다.
-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그 비율이 가장 낮았던 1965년 전체 인구의 55.5%에서 2015년 72.6%까지 증가하였다.

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

- 중국의 전체 부양비는 1965년 가장 높았던 80.1에서 2015년 37.7까지 하락하였고, 특히 1980년과 1985년 사이 59.9에서 48.0으로 5년 사이 11.9가 하락했을 때 그 하락 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확인된다.
- 중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역시 1965년 73.9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하락하여 2015년 24.3을 기록하였다.
- 중국의 노년 부양비는 1965년 6.2에서 2015년 13.3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였다.

연령별 출생 성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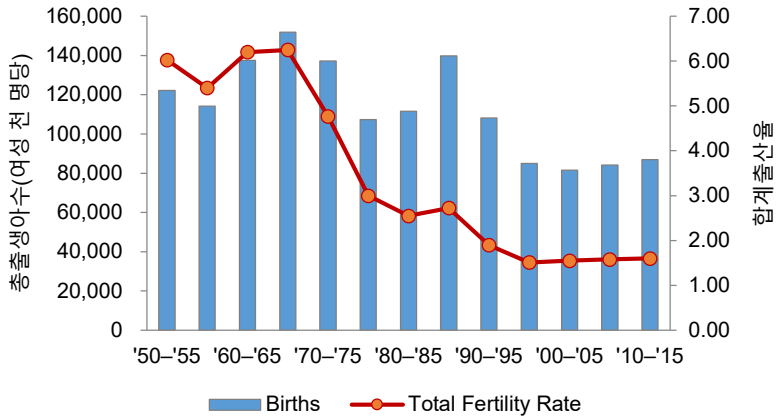
- 1985년과 2015년 사이, 중국 0-4세 인구의 성비는 여성 백명 당 106.4명에서 115.8명으로 증가하였으며, 이는 남아선호사상에서 비롯된 성선택 임신중절과 여성의 높은 영유아 사망력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.
- 1985년 45-49세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비가 발견되며, 이는 10세 연령의 간격을 두고 1995년, 2005년, 2015년의 연령별 성비 추세에 관찰되고 있다.
- 1985년과 2015년 사이, 80세 이상 노인 인구의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55.5명에서 74.8명으로 조금씩 증가하였다.

인구 피라미드

- 중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한자녀정책과 출산율 하락의 영향으로 하단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방추형을 띄고 있다.
- 2015년 각 5세 간격 연령집단을 비교할 경우, 중국에서 가장 인구 규모가 큰 연령 집단은 약 1,297만 명이 해당되는 25-29세였으며, 약 1,244만명의 45-49세 연령 집단이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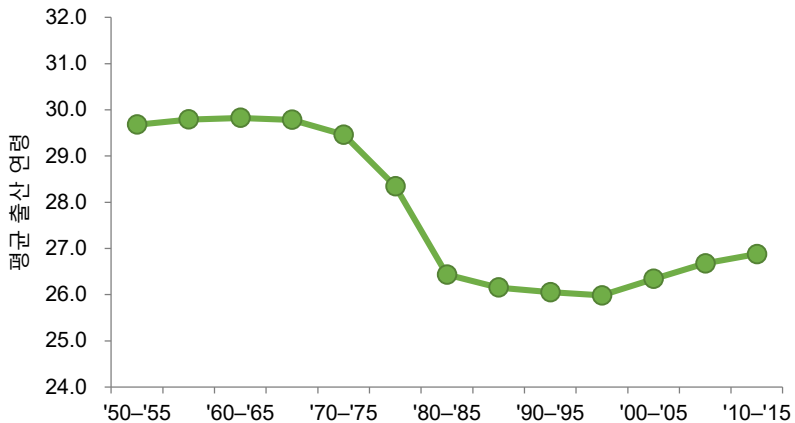


총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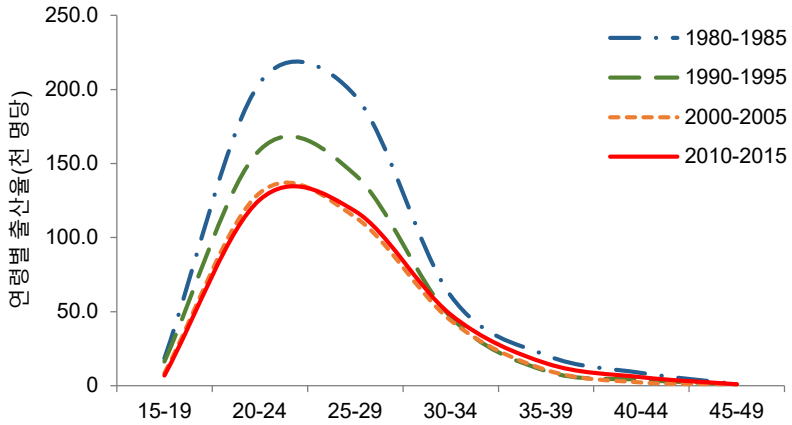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평균 출산 연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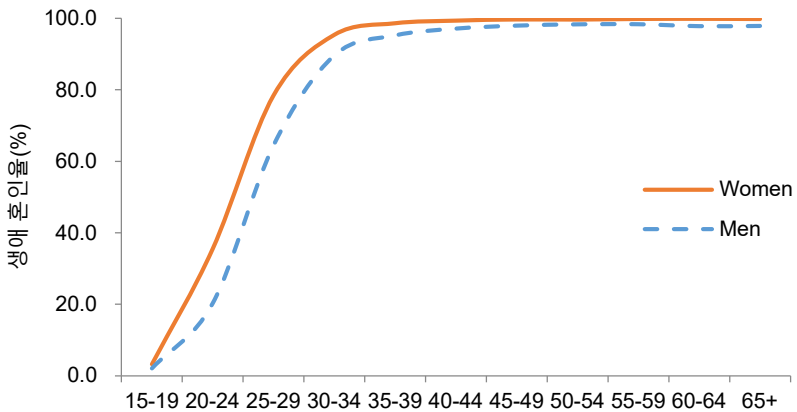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연령별 출산율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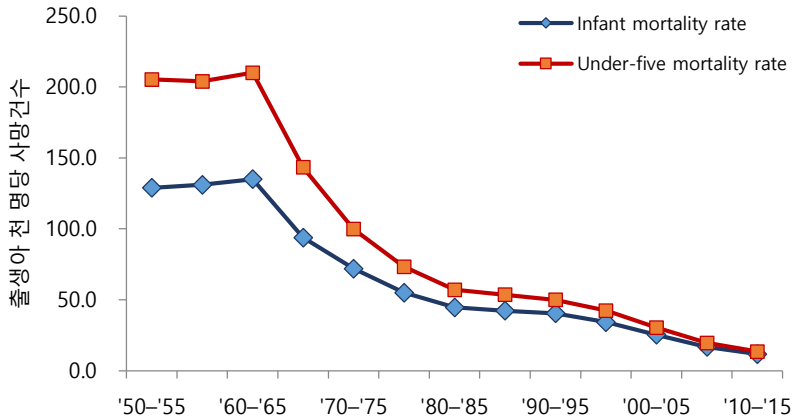
연령별 생애 혼인율, 2013



자료: World Marriage Data 2015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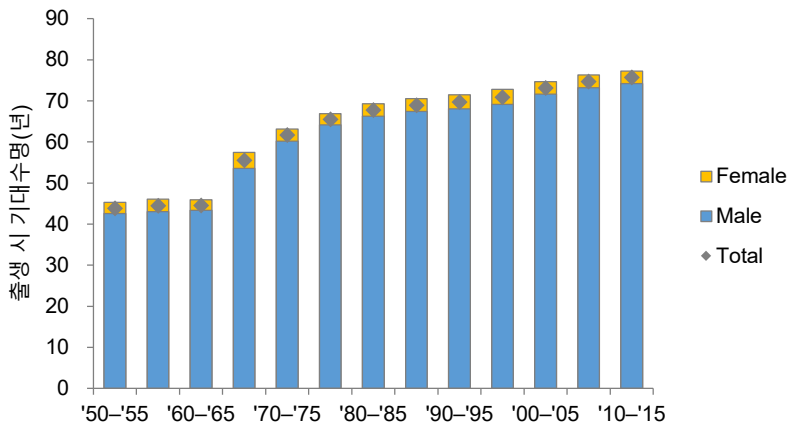


영아사망률과 5세 미만 유아사망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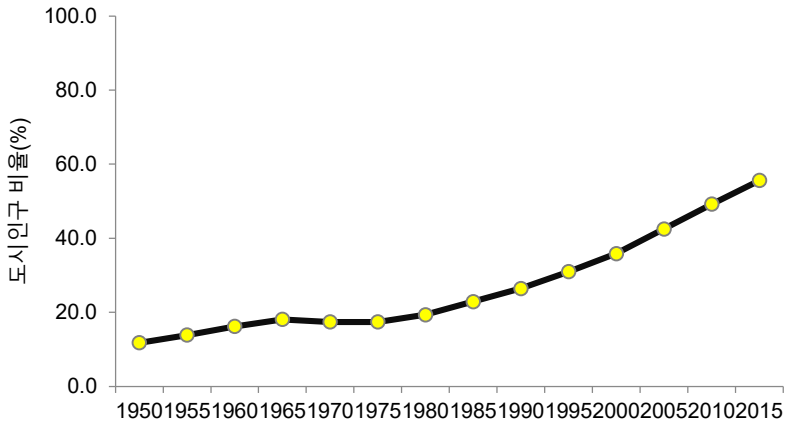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출생시 기대수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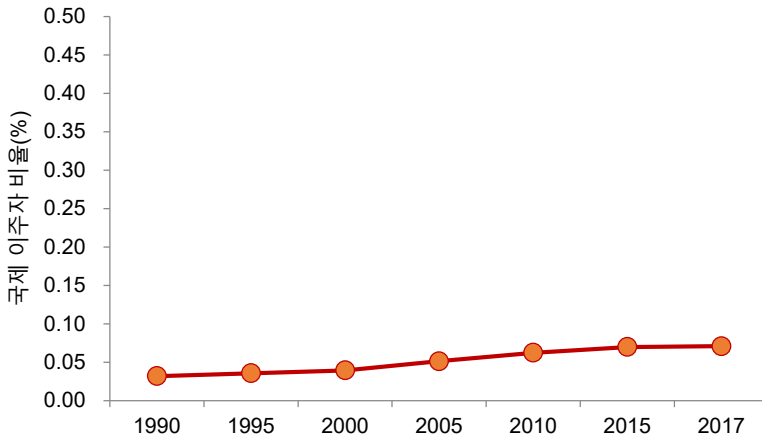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도시인구 비율



자료: World Urbanization Prospects: 2014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국제 이주자 비율



자료: International Migrant Stock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

중국의 인구통계 II

합산출산율

- 1950년대와 1960년대 중국 출산율은 여성 1인당 평균 5-6명의 자녀를 갖는 높은 수준이었다.
-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 초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-1995년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다.
-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995-2000년 1.51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, 이후 조금 증가하여 2010-2015년에 1.60을 기록하였다.
- 지난 40여 년의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, 중국의 총출생아수는 2010-2015년 사이에 약 8,702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.

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

-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초까지 중국 여성의 출산 시 평균 연령은 약 29.8세 전후에서 유지되었다.
-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1970-1975년 29.5세에서 1980-1985년 26.4세로 빠르게 하락하였다.
- 1980년대 초반 이후 중국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, 2010-2015년 26.9세를 기록하였다.

연령별 출산율

- 1980-1985년과 2000-2005년 사이에 중국에서는 거의 모든 연령 집단에서 출산율 감소를 경험하였으며, 2000년대 초반 부터는 연령별 출산율이 안정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.
- 가장 현저한 출산율 감소는 여성 20-24세 연령대에서 관찰되며 1980-1985년과 2010-2015년 사이에 여성 천 명당 204.4명에서 125.5명으로 감소하였다.
- 1980-1985년과 2000-2005년 사이, 연령별 출산율 곡선은 20대와 30대 여성 사이의 출산율 감소를 반영하며 빠르게 하강이동하였다.

남녀 연령별 생애 혼인율

- 2013년 중국의 45-49세 남녀 연령별 생애 미혼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98.0%, 여성이 99.7%로 나타나 보편혼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.
- 2013년 중국에서 여성의 생애 혼인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의 생애 혼인율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.

영아사망률과 5세미만 유아사망률

- 중국의 영아사망률과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은 지난 1960-1965년에 가장 높았으며 각각 135.0건과 210.0건을 기록하였다.
- 1960년대 초반 이후, 중국의 영아사망률은 빠르게 개선되어 2015년 출생아 천 명당 각각 11.6건까지 감소하였고, 5세 미만 유아사망률 역시 출생아 천 명당 13.5건까지 감소하였다.

출생 시 기대수명

- 1950-1955년과 2010-2015년 사이, 중국의 출생 시 기대수명은 47.9세에서 75.7세로 증가하였다.
- 2010-2015년 중국에서 태어난 여아의 경우 약 77.2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되어지며, 이는 같은 해 태어난 남아가 살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74.2세 보다 약 3.0년 긴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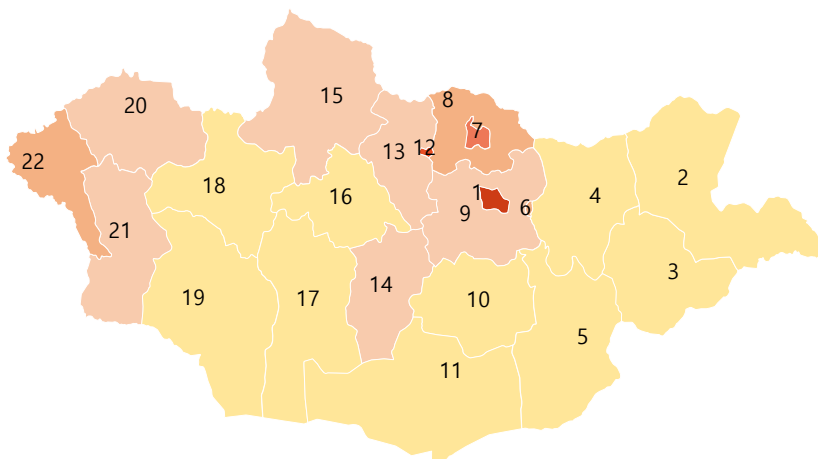
도시 인구 비율

- 중국 내 전체 인구 중 도시 인구의 비율은 지난 1950년 약 11.8%에서 2015년 55.6%로 점차 증가해 왔다.

국제 이주자 비율

- 중국은 전체 인구 중 국제 이주자 비율이 매우 낮은 국가 중 하나이며, 2017년 현재 전체 인구의 0.07%가 국제 이주자로 확인되고 있다.

11. 동아시아: 몽골



-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1. 울란바토르 | 9. 트브 | 17. 바양홍고르 |
| 2. 도르노드 | 10. 돈드고비 | 18. 자브항 |
| 3. 수흐바타르 | 11. 음느고비 | 19. 고비알타이 |
| 4. 행티 | 12. 오르홍 | 20. 오브스 |
| 5. 도르고노비 | 13. 볼강 | 21. 호브드 |
| 6. 고비숨베르 | 14. 으브르항가이 | 22. 바양-울기 |
| 7. 다르항-울 | 15. 흐브스글 | |
| 8. 셀렝게 | 16. 아르항가이 | |

지역	인구밀도
1 울란바토르	297.1
2 오르홍	125.9
3 다르항-울	30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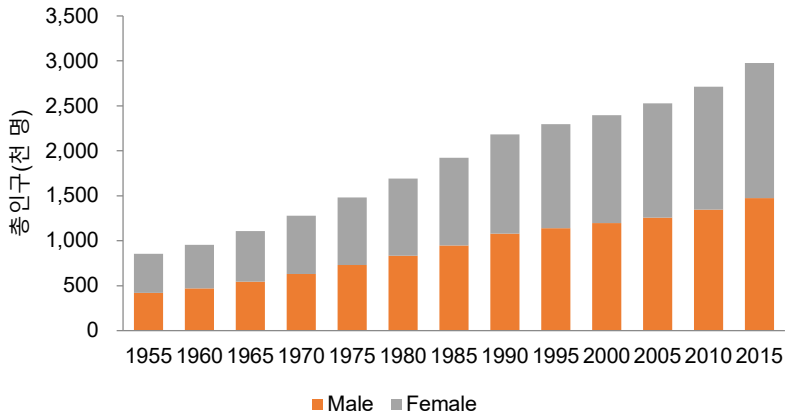
지역	인구밀도
22 고비알타이	0.4
21 음느고비	0.4
20 도르노고비	146

인구밀도

<1	<2	<5	<50	<150	<300	<500	<700	<1000	<2000	2000+
총인구				3,057,800			인구밀도			2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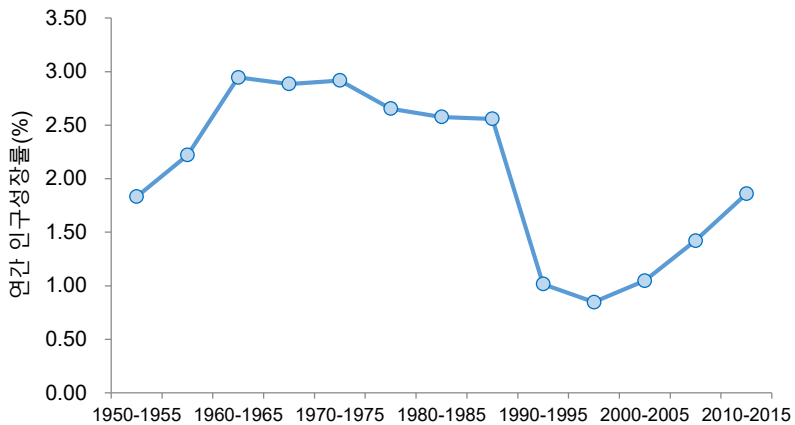
자료: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2015, National Registration and Statistics Office, 2015

전체 인구와 성별 인구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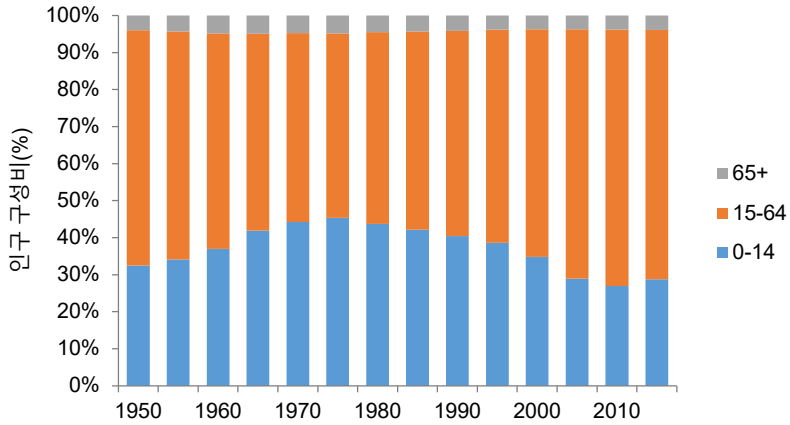
연간 인구성장률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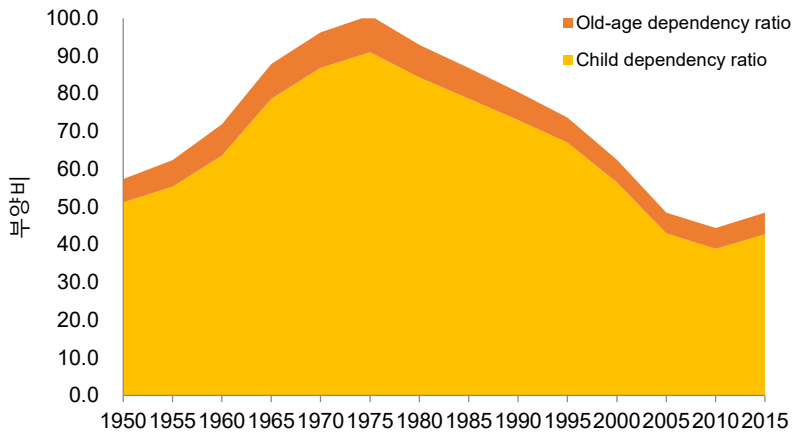


인구의 연령구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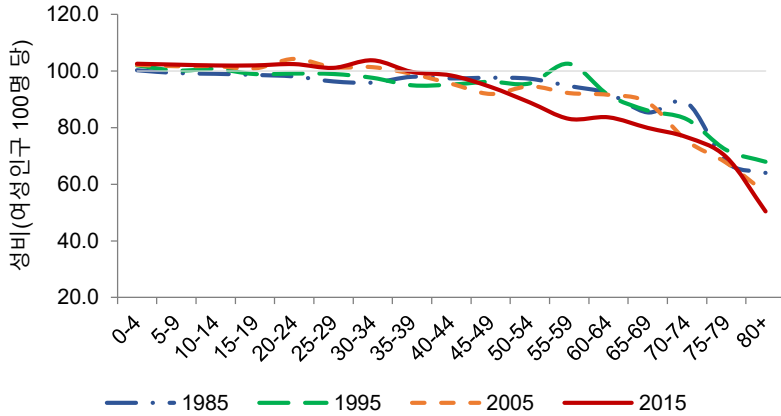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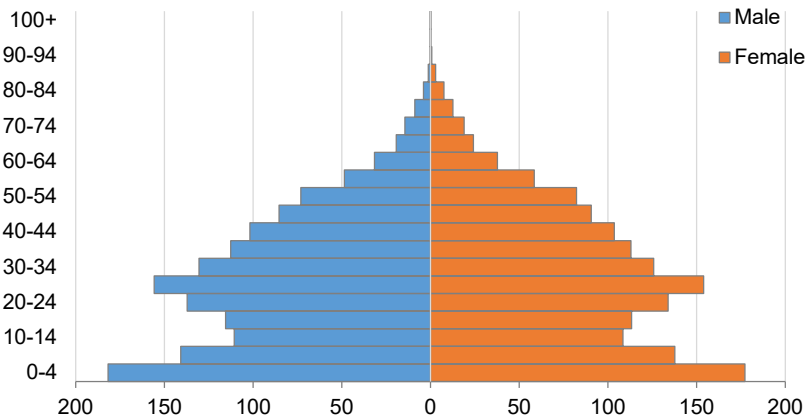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연령별 성비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인구피라미드, 2015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

몽골의 인구통계 I

인구밀도

- 몽골은 2015년 1km² 당 평균 2.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세계적으로 낮은 인구밀도를 갖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.
- 2015년 몽골의 수도, 울란바토르는 297.1명/1km² 이 거주하여 몽골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나타내는 곳이며, 125.0명/km²의 오르혼이 그 뒤를 잇고 있다.
- 고비알타이와 옴너고비 지역은 몽골에서도 인구가 가장 드물게 분포한 곳이며, 두 지역 모두 0.4명/km² 정도의 인구 밀도를 보이고 있다.

전체 인구

- 몽골의 전체 인구는 2015년 약 297만 명이며, 과거 1955년 85만 명에서 세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였다.
- 1955년과 2015년 사이에 몽골의 남성 전체 인구는 여성 전체 인구 보다 그 규모가 항상 작았다.

인구성장률

- 몽골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1985-1990년 2.56%에서 1990-1995년 1.02%로 하락하였다.
- 1996-2000년 몽골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0.85%로 가장 낮았으며, 그 이후 2010-2015년 1.86%까지 증가하였다.

인구의 연령구조

- 몽골 인구의 연령 구성은 1975년을 전후로 전환되었다.
- 몽골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중은 1950년 32.5%에서 1975년 45.3%로 증가하였으며, 그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 27%를 기록하였다.
- 2015년 몽골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중은 그 전 해에 비해 조금 올라 28.8%를 기록하였으며, 노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3.9%를 차지하고 있다.
- 몽골에서 1975년 49.8%였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5년 67.3%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.

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

- 몽골에서는 지난 1975년을 기점으로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추세가 전환되었다.
- 몽골은 유소년과 노년을 합한 전체 부양비가 최고점이었던 1975년 100.8에서 2015년 48.5로 하락하였다.
- 몽골의 유소년 부양비는 일부 시기의 오르내림을 겪으며 1950년 6.2에서 1975년 9.8으로 상승 후, 2015년 5.8로 하락하였다.
- 몽골의 노년 부양비는 1950년과 2015년 사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으며, 구체적으로 1950년 51.2에서 1975년 91.0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, 2010년 38.9로 하락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015년 42.7를 기록하였다.

연령별 성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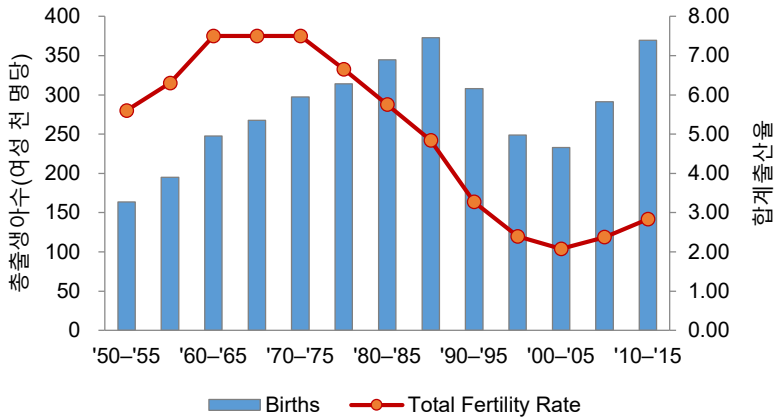
- 몽골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0-4세 인구의 성비가 여성 백 명당 102명의 남성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.
- 몽골의 2005년 연령별 성비와 2015년 연령별 성비를 놓고 비교해 볼 때, 50세 이상 중·장년층 연령대에서 과거에 비해 연령별 성비가 분명하게 하락한 것이 관찰된다.

인구 피라미드

- 2015년 몽골은 하단이 넓고 상단이 좁은 확장형 인구 피라미드를 갖고 있으며, 흡사 삼각형이 중첩되어 있는 형태로 뚜렷한 인구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.
- 2015년 몽골의 5세 간격 연령 집단 중 가장 어린 0-4세가 38만명의 인구로 가장 큰 집단이었으며, 약 31만명의 25-29세가 두번째로 큰 집단으로 확인되었다.
- 2015년 몽골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숫자는 가장 많은 0-4세 인구의 3/10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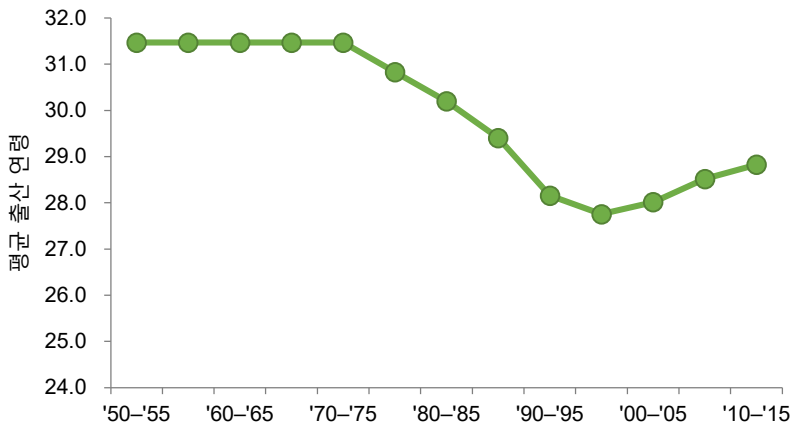


총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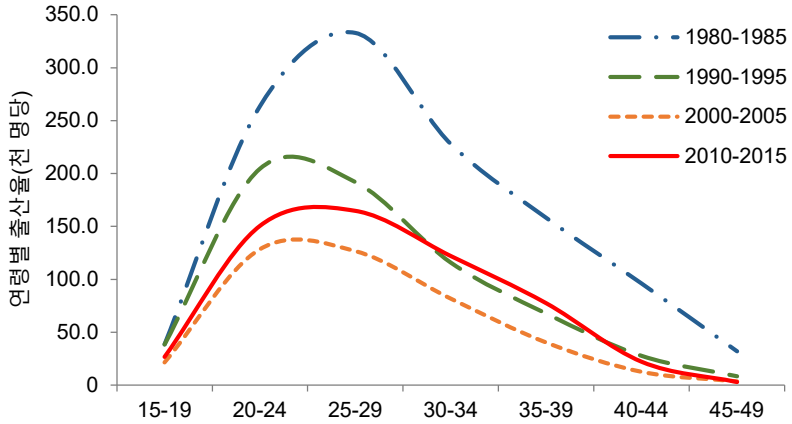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평균 출산 연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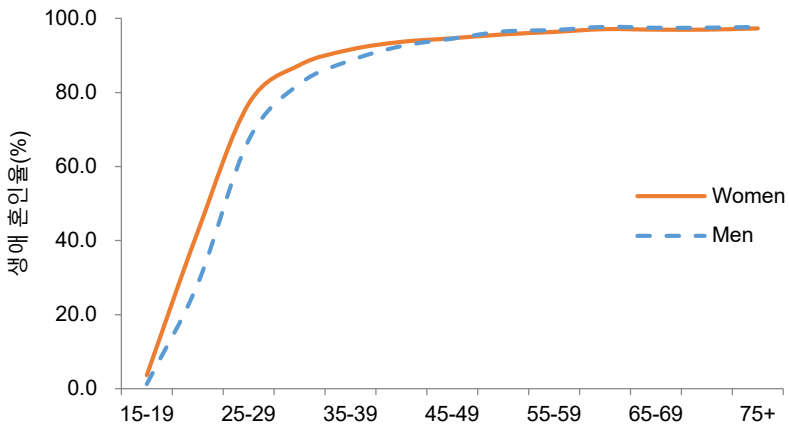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연령별 출산율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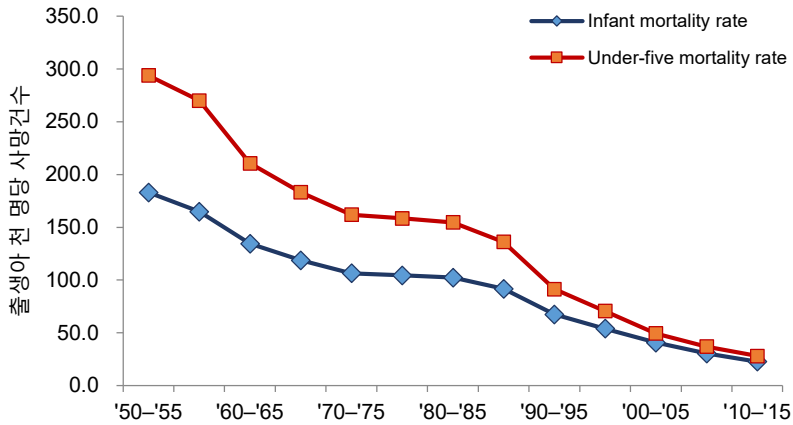
연령별 생애 혼인율, 2010



자료: World Marriage Data 2015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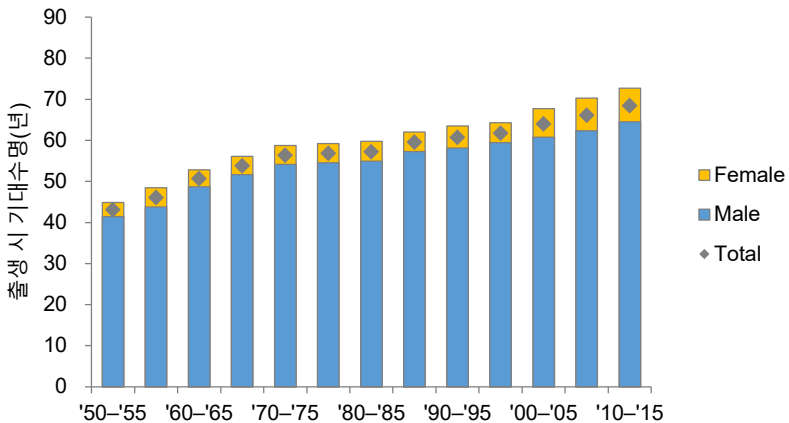


영아사망률과 5세 미만 유아사망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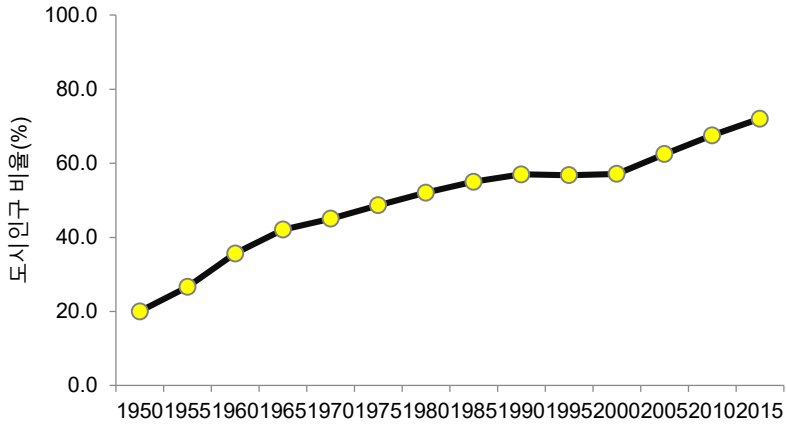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출생시 기대수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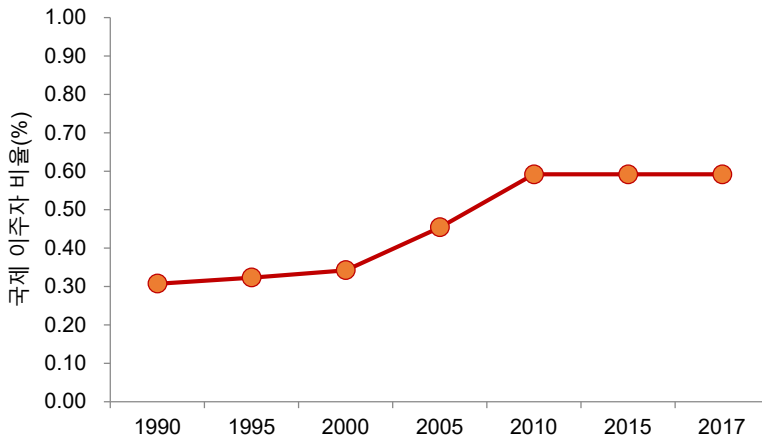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도시인구 비율



자료: World Urbanization Prospects: 2014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국제 이주자 비율



자료: International Migrant Stock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

몽골의 인구통계 II

합산출산율

- 1970-1975년 몽골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평균 7.5명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.
- 몽골의 합계출산율은 2000-2005년 대체 수준인 여성 1인당 2.08명 정도까지 낮아졌지만, 그 후 반등하기 시작하여 2010-2015년 여성 1인당 2.83명 수준까지 상승하였다.
- 출산율의 변동에도 불구하고, 몽골의 총출생아수는 2010-2015년 약 37만명으로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하였다.

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

- 몽골에서 여성의 출산 시 평균 연령은 1970-1975년 31.5세에서 1995-2000년 27.8세로 감소하였고, 그 후 조금씩 상승하여 2010-2015년 평균 28.8세를 기록하였다.

연령별 출산율

- 1980-1985년과 2000-2005년 사이 몽골의 연령별 출산율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감소하였고, 그 후 반등하여 2010-2015년까지 이어지고 있다.
- 1980-1985년 이래 몽골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은 예외적으로 1990-1995년을 제외하고 줄곧 25-29세 연령 집단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확인된다.
- 결과적으로 1980년대 초 이후 몽골 여성의 주요 출산 시기는 20대 중후반에서 안정되어 온 것으로 여겨진다.
- 몽골 여성의 25-29세 출산율은 1980-1985년 여성 천 명당 333.0명에서 2000-2015년 여성 천 명당 126.7명으로 감소하였고, 그 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0-2015년 여성 천 명당 164.9명을 기록하였다.

남녀 연령별 생애 혼인율

- 2010년 몽골에서는 45-49세까지 혼인을 경험한 비율이 해당 연령대 남성의 94.5%, 그리고 여성의 94.6%를 기록하였다.
- 몽골의 생애 혼인율은 50세 이하 연령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지만, 5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반대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영아사망률과 5세미만 유아사망률

- 몽골은 1950-1955년과 2010-2015년 사이에 영아사망률과 5세 미만 유아사망률에서 괄목할 만한 개선을 경험하였다.
- 구체적으로 1950-1955년과 2010-2015년 사이에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천 명당 182.9건에서 22.8건으로, 5세 미만 유아사망률 역시 출생아 천 명당 293.8건에서 28.1건으로 감소하였다.

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

- 2010-2015년 몽골의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68.5세로 기록되었으며, 60여년 전 42.3세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.
- 2010-2015년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을 성별로 살펴보면, 남성은 64.5세 여성은 72.7세로 나타났다.
- 몽골의 남녀간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의 차이는 1995-2000년과 4.8년에서, 2010-2015년 사이 8.2년으로 크게 증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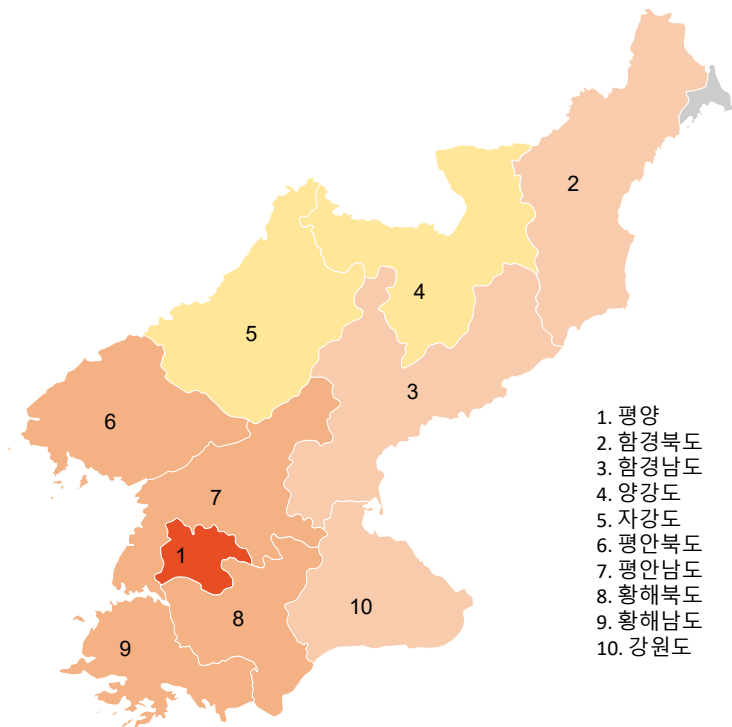
도시 인구의 비율

- 몽골에서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지난 1950년 전체 인구의 약 20.0% 정도였으나, 지난 65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5년 전체 인구의 약 72.0%를 차지하였다.

국제 이주자 비율

- 몽골의 전체 인구 중 국제 이주자들의 비중은 1990년 약 0.31%에서 조금씩 상승하여 2017년 약 0.59%로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.
- 몽골의 성별 국제 이주자 비율은 2017년 남성의 경우 전체 인구의 0.87%, 여성은 0.32%를 기록하였다.

12. 동아시아: 북한



	지역	인구밀도
1	평양	1863.4
2	평안남도	349.9
3	황해남도	273.4

	지역	인구밀도
17	양강도	51.8
16	자강도	77.5
15	강원도	133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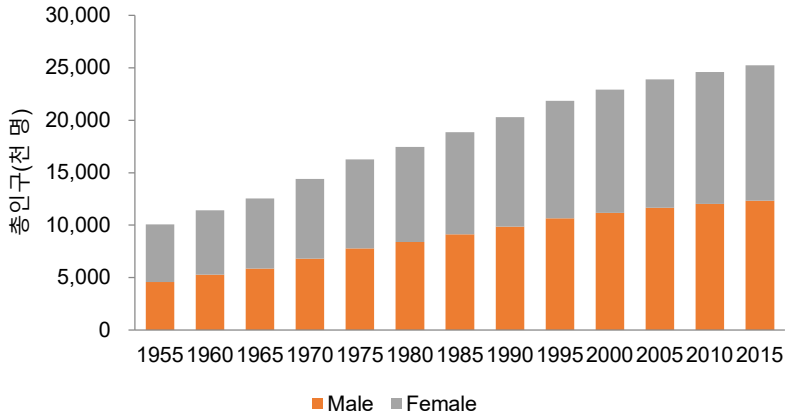
인구밀도

<100	<200	<500	<1000	<2000	<3000	<4000	<5000	<6000	<7000	7000+
------	------	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

총인구	23,349,859	인구밀도	189.6
-----	------------	------	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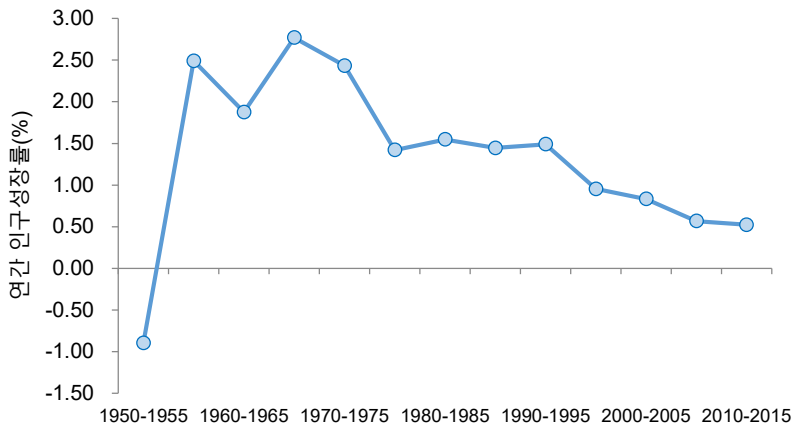
자료: 2008 Population Census, Central Bureau of Statistics, DPR Korea, 2008
Cadastral Statistics,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, Statistics of Korea 2016

전체 인구와 성별 인구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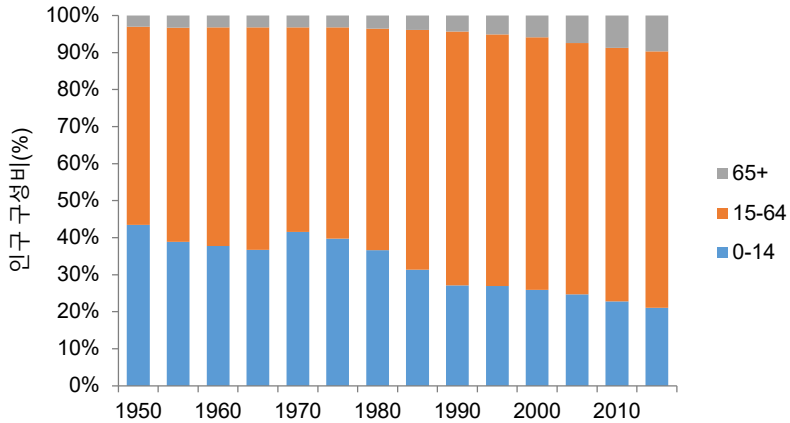
연간 인구성장률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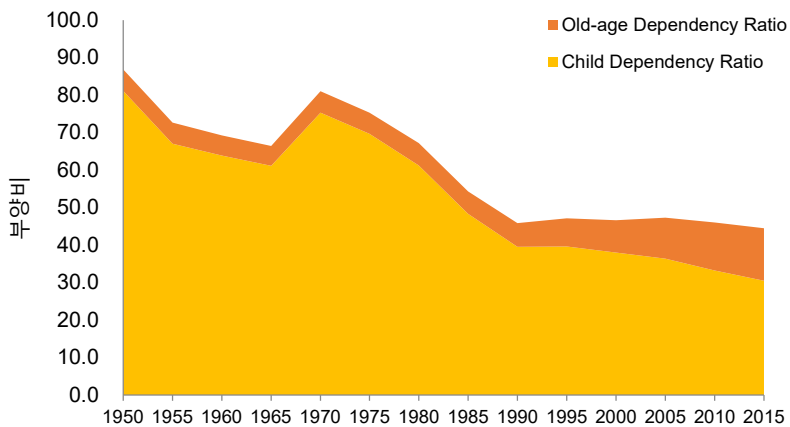


인구의 연령구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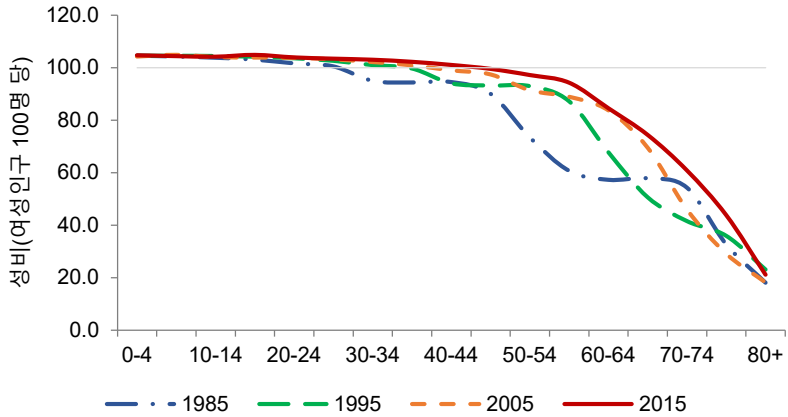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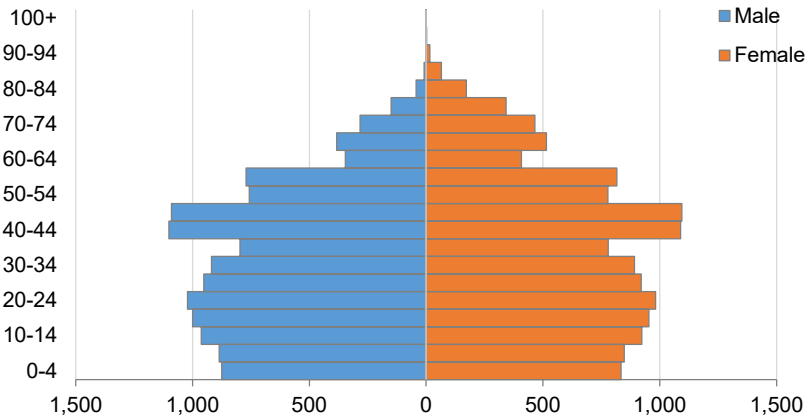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연령별 성비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인구피라미드, 2015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

북한의 인구통계 I

인구밀도

- 북한의 2015년 인구밀도는 209.6명/1km² 이다.
-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에 의하면, 북한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평양으로 1km² 당 1,863.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, 인구밀도가 두 번째로 높은 평안남도의 1km² 당 349.9명 보다 약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.
- 양강도는 2008년 1km² 당 51.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, 북한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.

전체 인구

- 북한의 총 인구는 1955년 약 1,009만 명에서 2015년 약 2,524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.
- 2015년 현재 북한의 남성 전체 인구는 1,235만 명으로 추정되며, 이는 여성 전체 인가로 추정되는 1,290만 명 보다 약 55만 명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인구성장률

- 북한은 1950년-1955년에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-0.90%로, 한국전쟁 당시의 높은 사망력과 남쪽으로 이주한 피난민이 그 원인인 것으로 여겨진다.
- 북한은 1965-1970년 2.77%로 가장 높은 연평균 인구성장률을 경험하였고, 그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0-2015년에는 연평균 약 0.5%의 인구성장률을 기록하였다.

인구의 연령구조

- 북한의 유소년 인구는 1965년 36.7%에서 1970년 41.6%로 빠르게 상승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1950년부터 2015년까지 43.4%에서 21.1%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.
- 2015년 북한의 15-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유소년 또는 노인 인구의 비중에 따라 오르내림을 반복했으며, 1990년 이후 전체 인구의 약 68-69% 수준을 유지해 오다 2015년 약 69.2%를 기록하고 있다.
- 북한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9.7%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

- 북한의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합한 전체 부양비는 일부 시기의 오르내림에도 불구하고 1950년 86.9에서 2015년까지 44.5로 감소하였다.
- 유소년 부양비는 1950년과 1965년 81.2에서 61.2로 점진적으로 하락하였으나, 1960년 75.3으로 갑자기 상승하였고, 그 이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 30.5을 기록하였다.
- 북한의 노년 부양비는 1985년까지 6.0 아래에서 안정적이었으나, 그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14.0를 기록하였다.

연령별 성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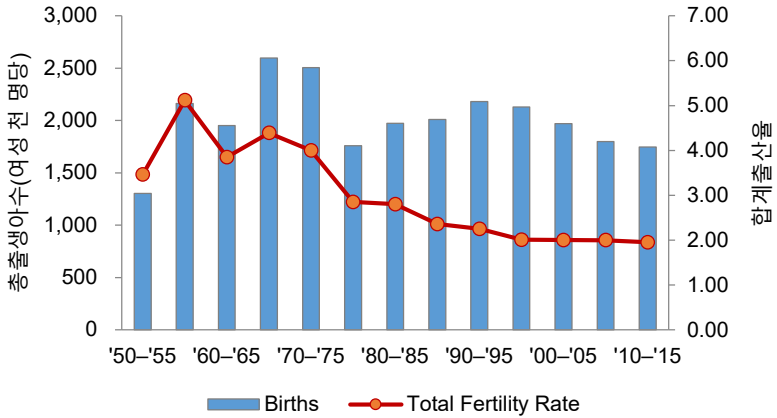
- 1985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의 0-4세 인구의 성비는 여성 100명 당 남성 104-105명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.
- 2010년 연령별 성비와 비교하였을 때, 2015년 북한의 성비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북한의 연령별 성비는 중장년층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비가 하락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, 2015년의 경우 성비가 하락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경사는 더 가파르게 변했다.

인구 피라미드

- 2015년 북한의 인구피라미드는 허리가 가늘고 상단이 좁은 호리병형의 모습을 띄고 있다.
- 북한에서 40-44세와 45-49세는 각각 2,190만 명과 2,185만 명의 인구가 속해 있으며, 전체 5세 간격 인구 집단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.
- 2015년 북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250만 명에 그치고 있으며, 특히 그 중 여성 인구는 160만 명으로 90만 명 남성 인구 보다 약 70만 명 정도 더 많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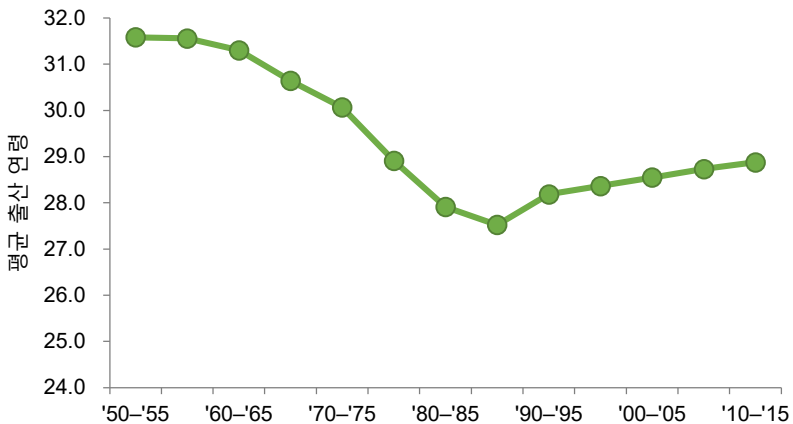


총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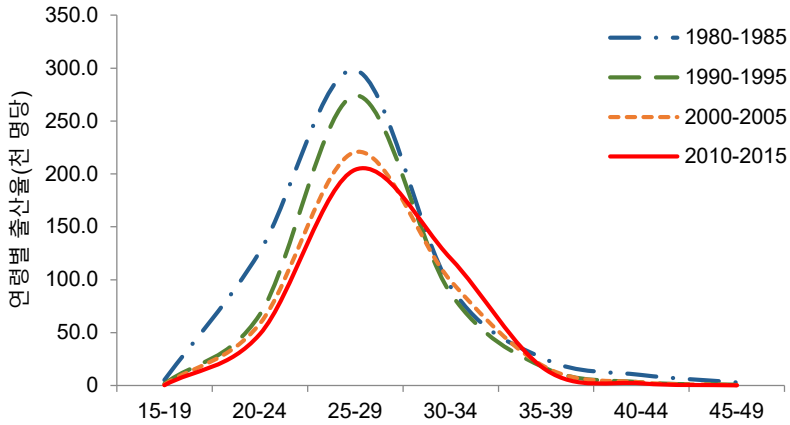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평균 출산 연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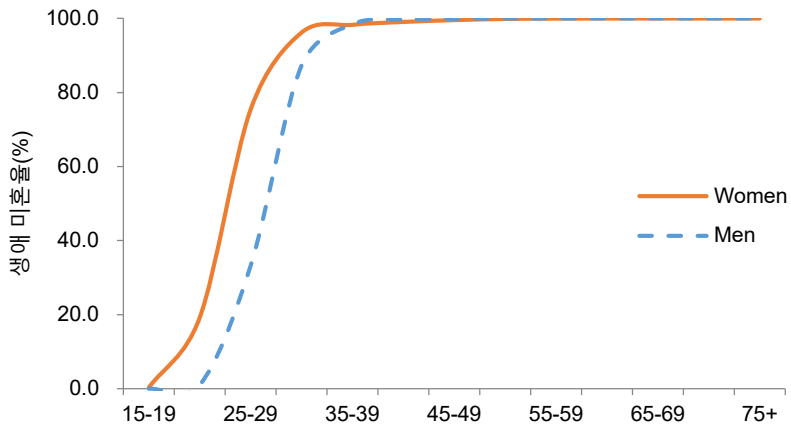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연령별 출산율


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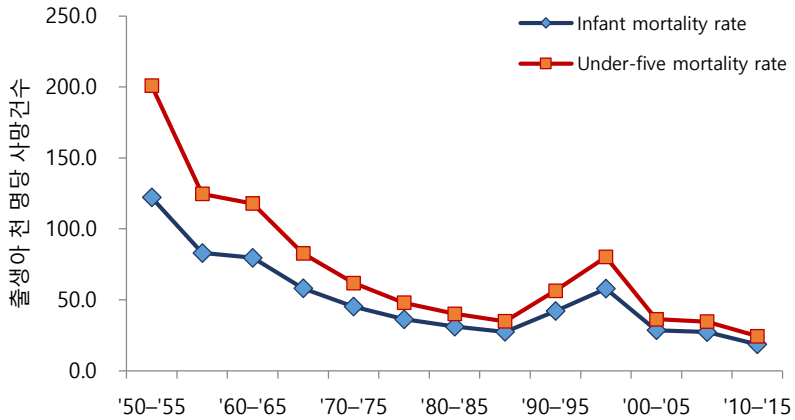
연령별 생애 혼인율, 2008



자료: World Marriage Data 2015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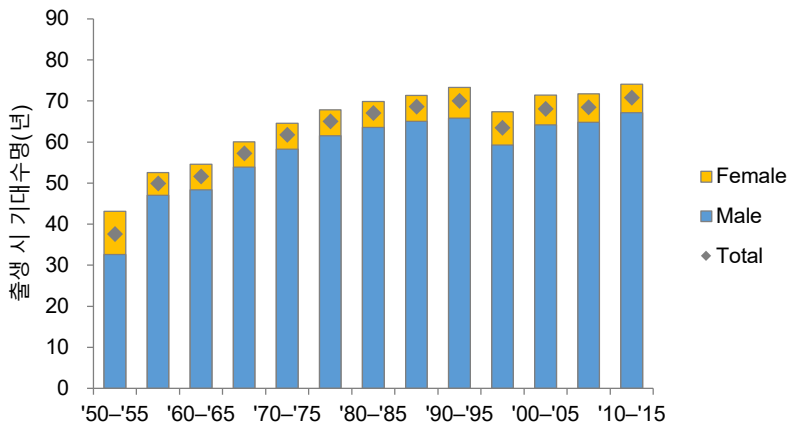


영아사망률과 5세 미만 유아사망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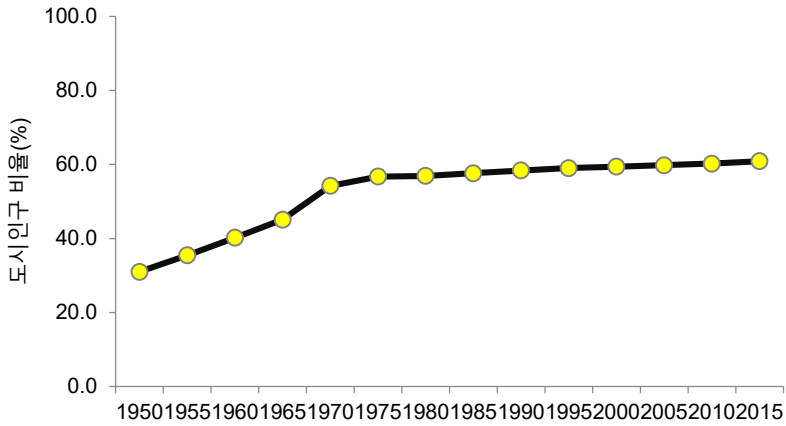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출생시 기대수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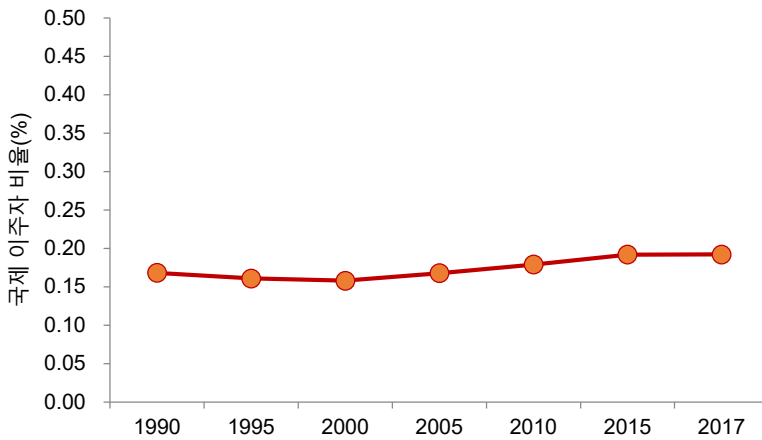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Population Prospects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도시인구 비율



자료: World Urbanization Prospects: 2014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국제 이주자 비율



자료: International Migrant Stock: 2017 Revision,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



북한의 인구통계 II

합산출산율

-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55-1960년 여성 1명 당 5.1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, 1995-2000년에는 2.01명으로 대체 수준으로 감소하였다.
-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95-2000년 이후 큰 변화가 없이 소폭 하락하였으며 2010년-2015년 여성 1인당 1.95명을 기록하였다.
- 2010-2015년 북한은 170만 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하였으며,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당 1.95명으로 나타났다.

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

- 북한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1950-1955년 31.6세에서 1995-2000년에는 27.5세로 감소하였다.
-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1995-2000년 이후에 다시 증가하여 2010-2015년 28.9세를 기록하였다.

연령별 출산율

- 북한에서 1980-1985년과 2010-2015년 사이에 나타난 출산율 감소는 주로 30세 미만의 20-24세와 25-29세 여성들의 출산율 하락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.
- 북한의 여성 20-24세 출산율은 1980-1985년 여성 천 명당 126.5명에서 2010-2015년 여성 천 명당 48.6명으로 감소하였다.
- 2000-2005년과 2010년-2015년 사이 30세 이상 연령대에서 출산율 상승이 관찰되고 있으나, 그 상승폭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.

남녀 연령별 생애 혼인율

- 2008년 북한에서는 45-49세까지 혼인한 비율이 해당 연령대 남성의 99.9%, 여성의 99.5%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남성과 여성이 혼인을 하는 보편혼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.
- 2008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, 북한의 남성과 여성은 대개 20대 또는 늦어도 30대에는 대개 혼인을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영아사망률과 5세미만 유아사망률

- 북한은 1950-1955년과 2010-2015년 사이, 영아사망률이 출생아 천 명당 122.2건에서 18.5건으로 감소하였으며 5세 미만 유아사망률 역시 출생아 천 명당 201.1건에서 24.4건으로 감소하였다.
- 북한의 영아사망률과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은 점진적인 감소세 있었으나 1990년대 반복적인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것으로 확인된다.
-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1995-1995년 출생아 천 명당 27.4건에서 1995-2000년 출생아 천 명당 57.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, 동일한 시기에 유아 사망률은 출생아 천 명당 34.8건에서 80.1건으로 증가하였다.

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

- 북한의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이전 1990-1995년 보다 무려 6.5세 감소하였던 1995-2000년을 제외하고, 1950-1955년과 2010-2015년 사이에 37.6세에서 70.8세로 크게 증가하였다.
- 2010-2015년 북한의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의 경우 67.2세, 여성의 경우 74.1세를 기록하였다.

도시 인구의 비율

- 북한에서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지난 1950년 전체 인구의 약 31.0%에서 1975년 54.2%로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였으나, 그 이후 완만한 증가를 보이며 2015년 약 60.9%를 기록하고 있다.

국제 이주자 비율

- 2017년 북한 내 국제 이주자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, 전체 인구의 약 0.19% 정도로 추정된다.